(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02 1981년12월22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December 22.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주미 폴랜드대사 망명

군정 비난, 미국은 사태 주시해야

(워싱톤)20일 주미 폴랜드대사 로멀드·스파소스키는 가족과 함께 미국망명을 선언한 후 폴랜드를 전쟁의 사태로 몰아넣은 군정을 비난했다.

헤이그 국무장관의 망명 인정과 미정부의 보호발표에 이어 스파소스키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일주일 전에 나의 조국 폴랜드에는 전쟁이 선포됐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향한 것이다. 군정의 보호아래 특수훈련된 병사들은국민들을 공포분위기에 몰아넣고 솔리대리티 지도자들을 찾아 가가호호 수색에 나섰다…"

폴랜드정부는 방송을 통해「스」대사 망명을 보도하고,「스」대사는 이미 소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거부했다고 발표했다.

「스」대사는 기자들 에는 "폴랜드는 모든 자유행동이 이 금지됐고, 교수들은 투옥됐으며 종교집회마저 금지되고 있다"면서 폴랜드는 외부세계와 통신을 단절,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30년이상을 외교관으로 지낸 61세의「스」대사는자기가족에 망명을 허락한미국정부에 감사한다면서 미국인은 폴랜드의 독립투쟁정신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는 평화적 수단으로 사태해결을 해야지 폭동은 사태만악화시킬 것이라고 스대사는 전세계인에게 호소했다.

솔리대리티 광산점령 1300명 투쟁

발렌싸는 안전, 군정과 협조거부

계엄령이 내린지 일주일 지난 현재도 95%의 산업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폴랜드정부의 발표에도 불구, 소련의 〈타스통신〉은 폴랜드 남부의 한 광산이 솔리대리티에 의해 점령, 1만 3천명의 광부들이 지하에서 항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부들은 계엄령후 광산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계속 투쟁하고 있다고 한 여행자에 의해 전해졌다.

가톨릭교회 당국자에 의하면 계엄령후 지금까지노조와 군의 충돌로 약200명이 죽었으며, 1,000명이부상당했다고 한다.

한편 폴랜드군정의 고위층인 비스라우 고니스키는 20일 미 CBS방송과의인터뷰에서 "계엄령과는 관계 없이 솔리대리티는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수상보좌관인 고니스키는 그러나 솔리대리티는공산당의 최고성과 폴랜드와 소련의 관계만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엄령후 우려되던 발렌싸의 동향에 대해 고니스키는 "그는 안전하다. 아무도 그를 다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믿을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발렌싸는 바르샤와 교외 육군본부에 보호중이라고 한다.

서방소식통에 의하면 감금중인 발렌싸는 군정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노조지도자들에게 긴밀히 연락 "공장점령을 신중히 하라. 신변안전이 보장될때만 하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20일 망명이유를 설명하는 로멀드·스파소스키 주미 폴랜드 대사 뒤에는 부인 완다여사

폴랜드 선원8명 일본기항 망명요청

(동경)폴랜드에 보낼 구호품을 싣기 위해 일본에 기항한 폴랜드화물선에 타고 있던 8명의 폴랜드인이 일본정부에 17일 정치적망명처를 요청했다.

폴랜드 자유노조 솔리대리티회원이라고 말한 이들 8명은 일단 일본에 망명했다가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또는 캐나다같은자유로운 나라」로 가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계엄령 하에 바르사바 거리를 누비는 군 장갑차

NATO근무 미국장성 피납

(워싱턴)이탈리아의 베로나에 있는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한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미육군의제임스·리·도지어 준장이 17일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고 미국방성이 발표했다.

도지어 준장은 그의 아파트에서 납치되었으며, 부인은 납치되지 않았다고국방성 대변인이 말했다.

◇납치된 미장성 제임스·리·도지어 준장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집나간소년 얼어죽어

부모와 언쟁후,12일간수색

부모와 언쟁끝에 집을나갔던 소년이 동사시체로발견됐다.

미시사가에보나로드에거주하는 버트·커비(12)군은 가출한지 12일만인 20일하오 QEW근처, 집에서 10km 떨어진 숲속에서 누워있는 시체로 발견됐다.

소년의 시체를 찾은 필지역 경찰은 적어도 죽은지 2일은 경과한 것같다면서 외상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소년은 지난 8일 부모와 피아노 렛슨을 두고 언쟁을 벌인 후 집을 뛰쳐 나갔다.

아버지 폴·커비씨는 소년과 언쟁후 버릇 고치려고 아들에게 동네 몇바퀴 뛰고 오라고 했다고 말 했다.

30분후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찾아나섰다.

지난 12일간 경찰은 전 미시사가 경찰과 메트로·토론토 경찰의 도움으로수색작업을 펼쳤다.

실종후 버트군의 친구들은 그를 만났었는데 토론토시내로 간다고 말했다고 했다.

버트군의 부모와 친구들은 버트군을 찾는 전단을 만들어 곳곳에 뿌렸다.

버트군의 집문에는 "사랑하는 버트, 벨을 눌러라, 두드려라"는 싸인이 적혀 있었다.

미국 이스라엘에 군사압력

베긴 강력히 응수,아랍진영결속

이스라엘 베긴수상은 20일 미국과의 군사협약의무효를 선언 더 이상 와싱턴의 위협이나 회유를용납치 않겠다고 강경한 어조로 미국을 공격했다.

베긴수상은 주이스라엘 새무엘·루이스 미 대사를 소환, 미국의 18일 대이스라엘 군사동맹 중지에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미국은 지난 14일 이스라엘이 시리아령 골란고원을 합병한데 대한 대응조처로 대이스라엘 군사동맹 중지로 맞섰다. 골란고원은 시리아영토로 67년 중동전쟁이래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었다.

베긴은 미국과의 관계악화로 지난 1일 미국과 체결한 무기판매협정은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200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협정을 맺었으나, 이로 인해 미국과 소련사이에서 갈등을 겪을지 모른다고 비평을 들어왔으며, 베긴정부는 이일로 인해불신임을 당할뻔 했다.

베긴은 또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은 반 유태인(Anti- emitism)감정이 여실히 나타났다고 비난하며 그 예로 미국이 사우디 아라비아에 AWACS 정보기를 판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베긴은 합병법안의 철회를 절대거부, "지구상의어느 권력도 이를 무효화시키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른 14개회원국과 같이 합병법안이비합법적이라고 규탄했다.

레이건 미대통령은 합병은 무력적인 영토점령과국경확정을 금하는 안전보장결의안 242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7년에 제정된 이 결의안은 그동안 중동평화에 크나큰 공헌을 했었다.

이같은 미측의 비난에 베긴은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승인하거나 협상에 거부함으로 결의안 242조를애초부터 무시했다고 응수했다.

한편 아랍 21개국 외상들은 27일 시리아의 요청으로 투니스에서 긴급회담을 갖고 이스라엘일 합병에 대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시리아는 최근 이스라엘의 움직임은 중동지역을일촉즉발의 전쟁상태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리아군은 전투태세가 갖추었다고 라우프키즘 시리아 수상은 말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랙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앞)

社 告

= 은세계에의 초대 =

초보자를 위한 스키 강습회

호수의나라, 백설의 왕국 캐나다의 겨울은스키와 낭만의 계절입니다. 이에 여러분을 설인(雪人)의 양지로 초대하오니 많은 참가를바랍니다.

때 : 82년1월28일(목)~30일(토)2박3일
곳 : 퀘벡주에서 가장 큰 명산 MT. 세넹
회비 : $180(1인당)※개인별로가면 $280초요

※대절버스(그레아 하운드)
—콘도미니움에서 숙식
—2일간 케이블카 무료제공
—2일간 스키 무료교습
—하루저녁은 대절버스로 퀘벡시내 관광

정 원 : 신청(선착순)35명
신청처 : 한국일보사 광고부(533-2361, 2)
브랜돈 스포츠사(이진영 598-3732)

주최 : 한국일보-토론토
Brandon스포츠사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찬영 변호사
RALPH LEVINE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SAVE! SAVE!
집을 가지신 분들
당신의 히팅을 아껴 보세요.
겨울이 다가 옵니다.
PRE-WINTER SPECIAL
가스 난방 써비스합니다.
※오직 $30.—에 다음 4가지를 해드립니다.
● Vacuum Furnace & Vents
● Oil Furnace Motors
● Adjust Furnace Motors
● Clean Furnace Filter
FOR ONLY $30
연락해서 아끼세요.
☎ : 497-1841
MILLER REFRIGEATION
HEATING & AIR CONDITIONING

謹賀新年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교민 여러분의
무한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진액자 하우스
746-2120 조 혜 숙

慶熙同門
송년파티 초대
해마다 년말을 맞이해서 모이는 즐거운 송년파티에 초대합니다.
일 시 : 1981년12월31일 밤11시
※장소가 변경 됐읍니다.
장 소 : 63 CROOKED STICK RD. CONCORD, ONT.
North of Dufferin으로가면서 Steele을 지나 계속 North로 가면 다리못미처 left turn (Glenshields Ave.) 하면됨
연락처 : 669-5084, 789-7544
회 비 : 없음. 단 기부금 대환영
※동문전원이 부부동반 모두 참석하하셔서 즐겁고 뜻깊은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품권 추첨있음)
경희대동문회
회장 : 이정호

AIL NO. 5248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교포 외국시민권취득후 1년내 국내재산 처분않으면 자동상실"

한국법부문 유권해석, 한국민에게만 양도

재미교포로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할때 국적취득후 1년이내 한국내토지및 기타상속재산을 대한민국국민에게 양도치 않을경우 자동적으로 모든 재산권이 상실된다고 법무부당국자가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8월7일 미주지역 총영사회의시 미시민권자 교포의 국내외국인토지법, 상속법과 관련 한국국적 상실과 동시에 재산권등의 상실을 우려, 2중 국적을 유지하려는 문제점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내린것이다.

이당시 미주지역 총영사회의는 교포들의 국내재산권보호 측면에서 관계규정의 보완문제를 본부에 검토요망했는데 법무부는 국적법 제12조를 들어 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국적자동상실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라도 외형상 대한민국국민으로 보여지나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고 못박았다.

재산권보호문제와 관련 예외인정이란 신중히 검토돼야할 과제이나 현단계로서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법무부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고 마틴·굿맨

「스타」사장 굿맨 별세
46세 젊은 나이에 암으로

캐나다 최대의 신문「토론토 스타」의 마틴·굿맨사장이 20일밤 암으로 세상떠났다. 향년 46세

소년같은 열정과 지칠줄 모르는 끈기의 사나이 굿맨씨는 몬트리얼 태생으로 기자에서 출발, 캐나다 최대의 신문사 사장으로까지 성장했다.

1년전 암의 증세를 안 굿맨 사장은 최근까지도그의 집무를 계속했고, 암에도 불구 그의 취미 야구를 계속, 토론토스타기자팀의 투수로 활약했었다.

매길대학과 콜럼비아대학을 졸업, 22세에 스타지 기자로 출발한 굿맨은 정치, 연예, 스포츠등 각종 사건을 취재했다.

유족으로 아내 재니스여사및 1남1녀를 남겼다.

航空社 계속赤字 管制士파업 要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의 항공사들이 계속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다.

전국항공사들은 올 상반기에 상당한 영업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4·4분기(10,11,12월)에 영업손실액이 1억달러를 초과해 결과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9월까지의 영업수익액은 1억4백만달러 였다.

80년도의 영업손실액은 2억2천6백만달러 였으며 79년에는 1억9천9백만달러의 이득을 보였다.

또한 지난8월 관제사파업으로 인해 항공사들은 1억4천6백만달러의 순적자를 냈다.

대처首相 人氣바닥 70%가 不信밝혀져

〈런던-UPI〉 영국최초의 여성수상 마가렛 대처가 2차대전후의 영국수상중에서 가장인기없는 수상으로 나타났다.

갤럽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70%가 대처수상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50.5%는 다음선거에서 사회민주당과 자유당에 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집권당인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은 각각 23%와 23.5%의 지지를 받았다.

현재까지 최하 인기를 기록한 수상은 노동당의 해롤드 윌슨수상이었다.

◇뉴욕 제트의 승리후 팬들과 환호하는 수비수 마크·캐스티나. 제트는 그린베이 28：3으로 눌러 뉴욕·자이안트와 같이 플레이-오프에 진출 와일드-카드를 거머쥐었다.

◇철새여 안녕—해마다 겨울이면 캐나다의 철새들은 추위를 피해 미국 남부지역으로 이동한다. 사진은 아리조나주 상공을 날고 있는 철새들.

무언곡
—멘델스존에게—
조미래

내려 누르는 힘은
대체로
슬픔이다.

안개에 눌린 호수를 보아라.
가까이 보면
물결이 아니라
바람든 내 혼(魂)이 쏟은
불면의 피이다.

심어야 할
사랑할 이웃 사과나무도
단숨에 무너뜨리는 저 괴물
슬픔을 겨냥한
내 공격의 무기는
말(言語)일 뿐.

믿을 수 없는 것은 시간의 힘.
믿을 수 없는 말 때문에
슬픈 그대와
그대의 슬픔을
못 이기는 내 말.

대체로
내려 눌림은
슬픔이다.

NFL 예선 끝나
10개팀 Play-off 진출
뉴욕·제트, 자이언츠 함께 와일드카드

뉴욕시의 풋볼팬들에게 크리스마스가 5일 앞당겨왔다.

지난 19일 뉴욕 자이언트가 달라스·카우 보이 를 13：10으로 물리쳐 플레이-오프 진출 문턱까지 왔을때 뉴욕·제트는 20일 그린베이·팩커를 28：3으로 대패시켜 제트는 물론 자이안트까지 끌고 Play-off 10개팀속에 들어갔다.

혼란을 거듭해오던 NFL 예선전은 21일밤의 샌디아고와 오클랜드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마친다.

21일 경기결과에 따라 샌디아고와 덴버, 둘중의 한팀이 결정되고, 그 나머지는 어메리컨·컨퍼런스의 마이애미, 뉴욕제트, 바팔로, 신시내티와 내쇼날 컨퍼런스에서는 달라스, 필라델피아, 뉴욕·자이언트, 탬퍼베이, 샌프란시스코의 총9개팀이 확정됐다.

그러나 와일드·카드를잡은 뉴욕·제트와 버팔로, 필라델피아와 뉴욕자이안트는 다음주 각각 경기를 벌여, 각조 우승 6개팀과 준준결승을 벌인다.

19일 마이애미에서 열린 마이애미대 버팔로의 대전은 마이애미가 전례대로16：6으로 이겨 AFC동부조 우승을 차지했다.

버팔로는 이로써 마지막 와일드·카드팀으로 전락, 뉴욕·제트와 27일 1차경기를 벌인 후 이 게임의 승자가 신시내티와의 아메리칸·컨퍼런스(AFC) 준결승을 벌이게 된다.

(지난주의 〈스포츠 단상〉 기사중 터치다운의 4점은 6점의 착오였고, 와일드카트팀은 교정미스로 와일드·켓츠팀이 됐읍니다.)

세계인구0.3% 감소
중공의 출산억제힘입어
아프리카대륙은 인구상승

〈워싱턴〉 중공의 출산억제정책에 힘입어 70년대의 세계인구증가율이 0.3%나 감소됐다고 국제조사국이 보고했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92%가 거주하는 56개국의 1965~75년간 인구증가율이 2.1%였으나 1975~79년 사이에는 1.8%로 떨어졌다.

대륙별로는 아프리카만이 유일하게 인구증가율이 상승했으며 나머지 4개대륙은 하락했다.

현재 세계 평균 출생율은 연간 1천명당 27명~29명이며 사망률은 11명내지 12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연간 순인구증가율은 1천명당 26내지 27명선이다.

◆남비 선물받은 수상-캐나다의 트뤼도수상은 여당인 자유당 크리스머스파티에서 남비를 선물로 받고 기뻐하고있다.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産을 위협 합니다.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10)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이제 그 줄에는 아무것도 매달려 나오지 않게 되자, 남자는 구덩이옆에서 피곤을 느끼기 시작했고, 세상은 자기가 만족할만큼 많은 동물로 가득찼기 때문에 잠이 들어 버렸지요. 그러나 여인은 자기가 낳은 그 모든 딸들처럼 고집이 세었고, 또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잠든 남편을 꾸짖었읍니다.

우리들은 그 여인이 구덩이옆에서 얼마나 앉아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는 겨울도 여름도, 또는 밤과 낮이 없었으니까요.

마침내 줄을 무엇이 육중하게 잡아채는 것이 있었는데, 거의 줄이 끊어질뻔 했지요. 남자는 팔딱일어나서 여인을 도와 함께 줄을 잡아당겼읍니다. 그것은 굉장한 몸부림을 쳤지만 여인과 남자가 끌어올려 놓고보니 왕관처럼큰 뿔이 달린 첫번째의 사슴인 툭투가 나왔답니다. 여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줄을 집어던져 버렸고, 깊은 구덩이는 막혀 없어져 버렸읍니다. 여인은 첫번째의 사슴에게 다음과같이 말했답니다.

『저기 평원으로 나가서물과 육지와 공중에 사는 다른 모든 짐승들처럼 번식해다오. 왜냐하면 너와 너의 종족은 나와 내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먹여 살려야 하느니라.』

첫번째 사슴은 알아듣고 여인이 말한 것을 지켜서 많은 사슴이 살게 되었답니다…!"

오호토가 이야기를 끝내자 우리 둘은 많은 사슴이 지나간 자국이 있는 넓은 협곡을 내려다 보았다. 사슴자국은 너무 많아서 온 천지를 덮은 촘촘히 짜놓은 거미줄처럼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한참동안 내려다 보다가 "그첫번째 여인과 그녀의 남편은 어떻게 되었지?"하고 불쑥 물어 보았다.

오호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첫번째 사람들은 내가 알 수 있는것보다 훨씬 오래동안 살았대요. 툭투가 많아서 굶주림을몰랐지만 남자의 정기는 아직 메마르고 여인의 자궁은 오래된 해골처럼 비어있었더랍니다. 그런데 헤켄죽 즉 새생명을 주는 해가 없었더라면 그런대로 얼마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헤켄죽은 아주 옛날 늑대와 오소리가 대전쟁을 했기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겁니다. 육지에 사는 동물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약은 동물이 오소리 입니다. 약삭빠르기 때문에 오소리는 캄캄한 곳에서도 사냥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마우 늑대는 밤에 사냥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읍니다. 가끔 늑대는 밤에 잘보이지 않는 눈으로 바위를 사슴인줄 잘못 알고 쫓다가 조롱을 당하고 도망치기가 일쑤지요. 아주 옛날에는 오소리와늑대는 바위틈바귀의 깊은곳에서 함께 살았지요. 그런데 한번은 굴뒷면을 파다가 태초에 카일라신이 묻어놓은 환한 얼굴을 가진 헤켄죽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늑대는 그때 너무 기뻐서 소리쳤지요. "해를 놓아주자. 그러면 캄캄한데에 빛이 있을터이니까 나는 굉장한 사냥감을 찾을 수 있을거야!"하고 말입니다.

오소리는 늑대가 훌륭한 솜씨로 사냥하는것을 보고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소리는 늑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번쩍이는 해위에 흙을 도루 덮어버렸읍니다.

이것이 싸움의 시초였는데 그 옛날에는 모든 동물들이 사람과 똑같은 말을 썼고, 그들이 싸움할 때도 한가지 말을 했읍니다. 오소리가 첫번째 늑대와 싸울때 그 싸우는 소리가 모든 산에 천둥같은 산울림으로 퍼져갔읍니다.

늑대도 약았지만 오소리는 더 약았읍니다. 늑대가 마침내 물린채 굴 속으로 도망쳐버리자 오소리는 곧 사냥을 나갔지요.

오소리가 나가버리자 늑대는 재빨리 헤켄죽을 찾아내어 바위가 누르고 있는것을 놓아 주었더랍니다. 해가 새카만 하늘 꼭대기로 광채를 내며 솟아 올라갈때 어두움은 걷히고 말았읍니다. 오소리는 격분했지요. 너무 격분해서 해까지도 무서움에 떨었으니까요. 오소리를 달래기 위해서 해는 매일 한번씩 숨어버리기로 작정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낮과 밤으로 변화를 갖고 있읍니다.

해가 있을때 계절은 변화하고 여름에는 사냥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면 늑대들은 힘이 세어지며 이때는 낮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사냥하기 힘들어지는겨울철에는 오소리가 기운이 세어지며 해는 숨어야되기 때문에 낮이 짧아지지요.

카일라신이 헤켄죽인 해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 버린것을 알자 노발대발했지요.

그의 번개불이 하늘을쪼개고 그의 폭풍이 육지를 휩쓸어 버렸어요. 하늘은 구름으로 변해서 니펠로비가 처음으로 지구위에 억수처럼 퍼붓게 되었던거지요.

그리고 아프트와 히코인 눈과 얼음뿐만아니라 겨울밤 내내 울부짖는 눈보라를 보내서 화풀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카일라신은지금까지 모든 날씨의 신으로 알려졌답니다. 오늘날도 그의 분노가 가시지 않아 우리 세상을 그분이 화가 났을때는 장난감 처럼 부숴버리고 맙니다.

(계속)

한국일보
533-2361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서울 사대부고 망년 파티

한해를 보내는 문턱에 서서 돌이켜보면 그동안 못다한 일은 태산 같기만 합니다. 몽땅 새해로 미루고 하루저녁 그리운 동문들과 함께 해 묵은 사연을 나눌 모임이 마련되었읍니다. 다채로운 여흥순서를 마련했사오니 동문제위께서는 두루 연락하셔서 성황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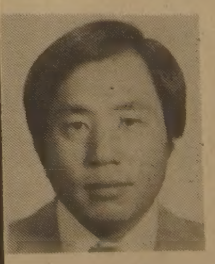
— 아 래 —

일 시 : 1981년 12월 26일(토) 오후6시
장 소 : 프린스 호텔1층 "프린세스룸"
YORK MILL & DON MILLS
회 비 : $40.00(커플), $25.00(싱글)
※ 디너파티, 복권추첨, 여흥순서
연락처 : 백 이 삼-251-6578
김 강 옥-298-4232
송 광 호-533-2364

● 복권추첨을 위해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서울 사대부고 동창회장 백 이 삼

종합보험



김 홍 랑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482-0166(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416) 533-2361~4

〈지상토론〉

비판에 대한 답변

—「코리안파워」에 대한 박찬도씨의 비판을 읽고

서 만 수 (한인회 청소년부장)

◇서만수 씨

※이 글은 본보11월 5일자 서만수씨의 제언 「코리언·파워」에 대해 박찬도씨가 쓴 「코리언 파워의 비판」(동 12월2~3일자)에 대한 답신의 글이다.

필자가 쓴 「코리안·파워」에 대한 비판의 글을(한국일보 81.12.3)읽었다. 선배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 생각하고 여러 모로 좋은 말을 많이 들었다.

단지 한가지 들고 싶은 것은, 필자가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표현되어 본인의 입장으로는 무척 마음에 걸린다. 한창 커나가는 젊은이에게 그토록 가혹한 비판의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이제야 "아"하고 "어"하고에 어감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 기쁘기도 하다.

박씨 글중 젊은이인데 진보된 생각을 갖지못해 섭섭하다고 했는데, 그 진보된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무척 궁금하다.

물론! 어떤 표현으로 보일 수는 없겠지만 그 진보된 생각이 박씨자신이 원하는 마음상태의 진보된생각인지, 아니면 박씨가 요새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주체성을 조금이라도 알고 한 말인지 진의를 가릴 수 없다.

필자의 글중 "협조, 희생, 봉사, 단결등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도 판에 박은듯 하여 염증을 일으키게 하였고…"라고 비판을 하였는데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필요한 생활규범이 협조, 희생, 봉사, 단결인데,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본다.

말로만 떠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안다. 무조건 나무라기 보다는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반성해 보는것도 좋은 일이고, 판에 박은듯한 소리라 할지라도 인간생활에 필요한걸 어쩌랴. 그것을 듣고 염증을 일으킬 정도라면 문제는 다른곳에 있는것 같다.

또 "그깟놈의 한인회소리를 듣고 어쩔 줄을 몰랐다."는 필자의 말에 박씨는 "임원들 입장에서 책임있는 말을 하여 저절로 불신할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박씨는 진보된 생각을 주장했고, 많은 필자에게 공박했듯이 50,60대 선배들의 말과 하등 다를 이유가 없다.

필자 소견에 진보된 생각이라면 잘못된 것은 고치고, 고칠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치고, 인식이 잘못되었다면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지, 무조건 책임을 임원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라는데는 이의가 없지만, 필자가 한인회 임원에 들어갔다고 남을 깔보거나 나자신을 높이려고 취한 행동은 없다.

한인회 임원직이 어디큰 직책이나 되는 것인가? 한인회 부이사장으로 있었다니 더욱더 잘 아는 일일텐데.

단지 어떻게 하면 한인사회가 발전하고 2,3세들에게 탄탄한 대로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소견이 「코리언파워」의 주된내용이고,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고자 기부금은 못낼망정 몸으로라도 때우려고 일을 하자는 것이지, 그 어떤 명예나 협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과이기심"이니 "과명성심"이니 하는 말은 웬말인지?·· (1)영리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2)시간과 돈을 뺏기면서(3) 그들에게 위로와 따뜻한말 한마디 (4)그런 사람은 어떤 일도 못하리라. 라는필자의 말에 대한 많은 비판의 글을 읽었지만 이것 저것 논하고 싶지는 않다.

박씨눈에는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뜨일지는 몰라도, 필자가 바라는 것은 서로 돕고 협조하여 한인사회가발전하는 것이지, 그 어떤 이기심은 없다.

한인회는 서로를 돕고, 잘 살기 위해서 공존하는 단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격려 한마디, 위로 한마디가 오고 가는 것이 서로들 상부상조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화자찬이 될 수도 없고, 엎드려 절받는 식의 것도 될 수가 없다.

아니, 되어서는 안된다. 박씨는 너무 좁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 아는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고, 모르는 사람은 알고 배울 의무가 있듯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협조가 필요하면알려주고, 도와주고, 모르는 사람은 배우고, 위로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다리 구실을 해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예헴" 하고 침묵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따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아는 사람이 알려 주는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무조건 어떠한 직책에있다고 사랑만을 외치는것보다 서로 돕고 협조하는 것이 훨씬 진보된 생각이고, "자기의 명예인직을 인식한다면 훨씬 차원 높은 사랑, 자유, 평등, 평화, 협동의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 명예행위에 가치를 둘진대"라는 박씨말처럼 어느 정도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한계를 넘어선 철학적인 면이 많아 진보적인 생각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필자가 쓴 글중 교회가 동,서,남,북 4개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박씨말처럼 황당무계한 소리인지도 모르겠지만 영적사업을 하는 교회가 10개, 20개, 50개로 갈라지고 쪼개져야 되는 것인지!

끝으로 박씨에게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생각을 너무 좁게 하지만 말고, 시야를 넓혀 큰 면을 보고 생각했으면 한다. 남을 비판해서 일깨워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일은 한인사회나 한인회, 그밖의 여러 단체, 2세들의 교육문제등 등 많은 조언의 글을 쓰시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하며 분투하시기를 빈다.

◆얼어붙은 동부와 중부—동부와 중부지방은 계속되는 폭설로 꽁꽁 얼어붙었다. 사진은 미네아폴리스의 한 시민.

생활의 지혜

맛있는 커피 끓이기

원료·저장·끓이는 방법이 관건

커피 애호가들은 품질높고그윽한 커피본연의 향을 내는 커피열매를 찾는다.

보통 백화점이나 수퍼마켓에서는 값싸게 살수 있으나 종류가 제한되어 있고 품질도 과히 좋지 못하다. 커피 맛을 아는 애호가들은 커피전문가게를 찾는다. 커피열매 종류도 다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열매 선택만큼 중요한 것이 저장방법이다. 열, 빛, 습기, 시간은 커피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진열대에 오랫동안 진열되었거나 햇빛이나 뜨거운 빛을 오래 받은 커피열매는 사지 말아야 한다.

집에서는 습기와 열을피할 수 있는 서늘한 곳에저장해 두어야 한다.

커피열매는 수개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나 일단가루로 갈아지면 금방 변한다. 또 커피열매는 진하게 볶을수록 더 빨리 상한다. 커피애호가들이 커피를 마시기 바로 전에 열매를 가루로 만들어 끓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커피를 끓이는 기구이다.

많은 수의 커피애호가들은 종이 필터를 사용한다. 가루커피를 원추모양의 여과지에 올려놓고 끓는 물을 부어 커피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커피가 아주 뜨겁지 못하며 향내가 풍부하지 못하다는 2가지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위해 여과기와 열장치가 동시에 부착된 자동커피끓이개가 만들어졌으나 아직도 커피애호가들을 만족 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단점들을최대한으로 개선한방법이 프렌취 멜리오(French Melior)시스템이다. 필터로 커피를 끓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애호가들에게풍부하고 강한 감미로운 커피의 맛을 약속한다.

뉴-서울
宋椿嬉
특별출연
529 BLOOR ST. W. TOR.
(오리엔탈파레스2층)
전화: 533 -1500

아쉬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간 교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저 유명한 민요가수 송춘희양을 초청하고 12월28일부터 신년 1월 3일까지(7일간) 뉴-서울에서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읍니다. 이 기간중 연말잔치 신년잔치등 많이 이용하시고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권순근악단
아리랑무용단
매일출연

영업시간: 7시~새벽1시
일요일영업: 7시 ~ 10시

송년잔치예약

12월 31일 송년잔치(NEW YEAR'S EVE CELEBRATION)에 한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있읍니다.

가 격: 1인당 $25.—
파티시간: 7시~1시까지
예약전화: 낮(533-3545)
밤(533-1500)

식사제공(버훼)
송춘희 쇼
파티에 필요한 모자, 온관, 피리등 제공함.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두子女초과 住民稅 더낸다

人口억제策 83년 出産兒부터

戶主철폐·相續法 개선

稅制·醫保등 男女차별없애

정부는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한집 두子女를기준, 83년出産兒부터는 이를초과할경우 더낳는수만큼 住民稅를 추가부담시킬계획이다。또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증가 主因이 아들을 꼭낳아야한다는 전통적인 男兒選好관념때문이었다고보고 이같은생각을 뿌리깊게 해온 남존여비와 남녀차별을조장한 각종 가족관계법령등 사회제도를 바꾸어나가기로했다。정부는 이를위해 이미 법무부에民·商法개정 특별심의 위원회를 설치, 내년말까지 戶主제도의 철폐, 아들·딸을차별하는 현행 相續制度(아들1에 딸은2분의1, 출가한딸은 4분의1)와 친족범위의개선, 혼인연령(男만18세, 女16세)의 상향조정등내용의 관계법령개정안을 확정키로했다。

17일 인구정책심의회(위원장 申秉鉉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결을 거쳐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정부의 인구증가억제대책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녀교육비에 대한 소득세비과세를 내년부터는 두子女까지로한정, 그 이상 자녀에대해서는 세금을 물리도록하고 지난 5월 폐지된 2子女이하 不姙施術가정에 대한 公共住宅入住우선권도 내년부터 復活시키기로했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지위향상을 통해 男兒選好관념을 없애도록 한다는 취지아래 내년부터 공무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할때 시집간 딸이나 사위도 실제 친정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실때는 해당가족수당을 추가로 받을수있도록했고 설사 딸이 시집을 갔고 또 住民등록상 世帶가 달라도 딸이 보험에 들어 있을때는 친정부모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했다。

또 현행 근로기준법과 선원법등에서 高所線路취급、乘船작업등 30여개 위험직종에 대해 여성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대폭줄여 기중기운전、용광로작업등 25개 직종●정도는 여성에게도 취업을 허용하고 幼兒院시설 확충과 컴퓨터산업의 펀처 프로그래머등 여성 유망직종을 개발、여성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했다。

가족계획사업도 보다 활발히추진、내년부터는 不姙施術者에대한 특별생계비 지원을 준영세민(靑色카드소지자)1백50만에까지 확대(현행黃色및 綠色카드소지 영세민 2백20만대상)하고 지원금도 현행 4천1백원에서 취로사업 3일분 5천?원에해당하는 9천원으로증액、불임수술할때 보건소에서 바로지급토록했다。

지난80년의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은 1·57%로 선진국의 0·67%(75~80년)보다 2배가넘고 이같은인구증가율이 계속되면 오는2천50년엔 우리나라인구는 7천2백만명이 넘을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있다。

◇인구증가 전망

	단위	1960	1980	1990	2000	2050
총인구	천인	25,012	38,124	44,261	50,066	61,310
인구밀도	인/㎢	254	385	447	506	620
연증가인구	천인	709	584	595	499	0
인구증가율	%	2·84	1·57	1·34	1·00	0·0
총출산율	여자1인당	6·1	2·8	2·1	2·1	2·1

全대통령、前方시찰 將兵격려

〃挑發엔 즉각報復 敵의 誤判막도록〃

全斗煥 대통령은 年末을맞아 17일 상·상하오에 걸쳐中·西部전방군부대들을 시찰、장병들을 위로 격려하고 冬季경계태세강화에 만전을 기할것을 당부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韓美연합야전군사령부를 방문、제임즈·보트사령관으로부터「攻勢的 방어작전개념」에관해보고를받고 北韓의 局部的도발을 비롯해 어떠한 도발에도 이에 상응한 보복조치를취해 敵의 誤判을 막도록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駐韓美軍들이 조국과 가족을 떠나 韓半島 평화를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있는데대해 감사와 위로를 보낸다』고 말하고『韓美양국의 협조가 더욱 강화되기를바란다』고 덧붙였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어 中部와中東部의 한국군전방부대에 들러 지휘관들로부터 부대현황등을보고받은뒤『국제정세가 과거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더하고있으므로 특히冬季경계태세를강화하라』고당부했다。

이날 全대통령의 전방시찰에는 周永福국방장관과 黃永時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부대지휘관들이 수행했다。

波勢組운동 地下잠입

軍部서 抗議罷業 武力진압

主敎團、軍政탄압 反對선언

【바르샤바16日AP=聯合】폴란드군부는 계엄선포 4일째를 맞은 16일 그다니스크 스체친 그디니아등 발트해 연안 공업지대의 노동자파업을 분쇄、그들의 국가통제력을 눈에띄게 확대하고있으며 계엄선포로 활동이 중단된 자유노조운동은 지하로 잠입하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관영 PAP통신은 자유노조소식통들이 19일을 기해 폴란드 전국에서 계엄에 항의하기위한 총파업이 벌어질것이라고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폴란드 전국이「완전한 평온」을 되찾았으며 구국군사평의회 의장인 보이체흐·야루젤스키장군의 통제하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바르샤바의 서방외교관들은 이날 소련의 수송기들이 바르샤바와 다른 폴란드공항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모스크바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수송기들이 병력이나 군사장비등을 수송했을 가능성을 완강히 배제하면서 다만 폴란드의 절박한 식량난을 해소시키기위해 식료품이 공수됐을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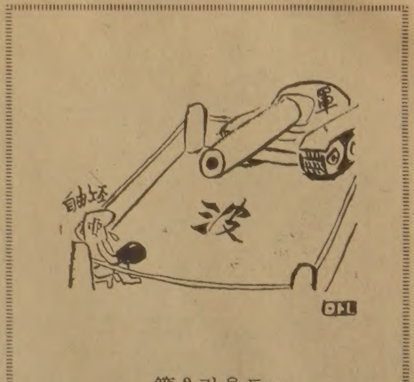
【바르샤바·파리16日AP聯合】폴란드 가톨릭교회는 16일『폴란드는 무력 탄압을받고있다』고 선언、현軍政당국이 취해온 일련의 조치에 반대하는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다。

폴란드 국민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있는 폴란드 가톨릭교회 요셉·글렘프대주교는 이날 主敎團이름으로된 성명에서 체포된 자유노조지도자와 노동자 지식인 과학자 학생들이「수많은 가혹행위」를 당하고있다고지적하고 체포된사람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바르샤바近郊에 바웬사 軟禁說

【로마·바르샤바16日AP聯合】폴란드정부는 폴란드자유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를 바르샤바근교에서 가택연금 상태하에 억류해두고 있다고 에밀리오·콜롬보 이탈리아 외상이 16일 말했다。

社會漫評



第2라운드…

地平線

「노다지를 캔다」는말이 있다。사전대로라면 목적한 광물이 쏟아져 나오는 광맥을 캔다는 말이 되겠으나 요즘은 거기서 좀더 俗化하여「벼락부자」가된다는 말로까지 발전하였다。

濟州島남방 3백㎞되는 해상에서 시추선을 세우고 기름의「노다지」를 캐보았으나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그래서 벼락부자까지는 안되어도 石油의 부자가되는 꿈은 또한번 깨어진 셈이다。▼정확하게 말해서 石油가 분출하려니하고 시추선을「룰링10」위치」에 세운후 지난 5월부터 63일동안 바다밑을 뚫었지만 油徵은 비치지 않은것이다。그동안 가스(에탄 그리고 메탄)마저 새어나온다하여 혹시나 하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도했는데 알고보니 이 가스는 經濟性이 없어 좋은 구멍을 통째로 메워야 했다는 소식이다。이번에 시추를 해본 자리는「북위 30도 23분12초、동경1백26도27분33초」해저였다。▼석유시추에는 우선 位置를 정확하게 잡아야한다。人工衛星의 도움으로 요즘은 1분1초도 틀리지 않게 정확한 자리에 시추선을 投錨할수있다。이 위치도 예사로 정해진것은 아니다。彈性波탐사、重力탐사、磁力탐사등 고도의 과학적방법을 써서 海底의 地質을조사하고 背斜구조를 검토하여 선정된 곳이다。그런데 보면 콜럼비아 宇宙船이 갖춘 裝備가운데는 더 개발된 고성능지질탐사시설이 되어 있었다고 알려졌다。얼마전 우리나라 東南部地域의 사진까지 찍었다고 한다。가장 기대치가 큰 지점이 가히 1㎞의 오차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과학의 발달은 石油埋藏의 가능성이 가장 짙은 地點을 찾는데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하고있다。▼그러나 우리 경우「노다지」가 있으리라고 본 자리에다 시추를 했으나 또 失敗했다。노다지란 말의 제3의 뜻인「행운」이 역시 우리에게는 고개를 돌렸다고나 할까。요즘은 시추선을 빌리는데도 하루 4만弗 이상이 들고 이번 7광구 小區의경우 시추구 하나에 1천7백만弗이상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졌다。앞으로 87년까지 韓日대륙붕에는 11개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을 하고있어 탐사、傭船、시추를 하다보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되어있다。1억弗이면 더 ▼우리가 뚫고 있는 7광구 하나의 石油埋藏은 20억배럴에서 62억배럴까지 여러가지로 추정되고 있다。1個孔의 매장량 1억배럴、日生産量 1만배럴이상 만되면 우리로서「經濟性」은있다는게 전문가의 장담이다。그런 油孔은 언젠가 뚫린다。英國은 北海에 5년간 4백67개공을 뚫어 겨우 한개구멍을 찾았다。기다려보자。「노다지」가 나오라고 행운을빌며—。

檢察간부 후속人事 斷行

法務部 어제 高試8회出身 중심으로

法務部차관	李永旭
大檢차장	徐東權
硏修院長	李明熙
서울高檢長	金錫輝
大邱 〃	金聖基
光州 〃	裵命仁
서울地檢長	丁海昌
釜山地檢長	李愚珏
大邱地檢長	安景相
光州地檢長	白光鉉
檢察局長	金淇春

◇李永旭법무차관

◇徐東權대검차장

◇李明熙연수원장

◇金錫輝서울고검장

◇金聖基大邱고검장

◇裵命仁光州고검장

◇丁海昌서울지검장

정부는 전격적인 검찰총장경질에이어 17일 모두38명의 검찰수뇌급과 중견검사에 대한 대규모후속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이번인사에서 법무부차관에 李永旭大邱지검장을 승진발령하고 대검차장에 徐東權법무부차관을、서울지검장에 丁海昌법무부검찰국장을 임명하는등 淸州를제외한 8개지검검사장을 전원교체했다。

또 서울고검장에 金錫輝서울지검장이、大邱고검장에 金聖基대검총무부장이、법무부연수원장에는 李明熙水原지검장이 각각승진했으며 光州고검장에는 裵命仁대검차장이 전보발령됐다。

이밖에 법무부검찰국장에는 金淇春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이、교정국장에는 金鎔鐵북부지청장、출입국관리국장에는 鄭銖永송무담당관이 각각임명됐다。

새로임명된 각지검장은 水原지검장에 李重根 대검형사제2부장、春川지검장에 姜達秀대검형사 제1부장、淸州에 宋炳喆법무부 기획관리실장、大田에 李容植 光州지검장、大邱에 安景相 법무부교정국장、釜山에 李愚珏 淸州지검장、光州에 白光鉉법무부법무실장등이다。

또 李秉根釜山지검 제1차장과 朴燦太남부지청차장은 각각 대검형사제1부장과 대검공판송무부장으로 발탁되는등 6명의 고등검찰관이 대검검사로 승진했다。

한편 지난15일하오 사표를 제출한 고시8회이전의 鄭明來법무부연수원장 李楨桂서울고검장 朴駿陽大邱고검장 柳泰善光州고검장은 이날자로 사표가 수리됐다。

법무부는 이번인사는 검찰조직의 혁신인사라고 지적하고 지난4월의 1차인사개편이후 야기된 국내외여건의변동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가최고정책에 부응하는 일사불란한 검찰운용체제를 확립시켜 제5공화국의 개혁의지구현의 새로운 검찰상을 정립시키려는 정부의 굳은의지를 반영한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12·17대인사이동의 특징은▲정례적인 개편의 차원을넘은 일대개혁인사라는 점과▲후배가·총장으로 기용되는경우 선배가 용퇴하는전통을 확립했고▲고시8회로 검찰조직의 중추를 마련했으며▲고시10회~14회 출신들이 검사장으로 승진되는등과감한 세대교체를 실현했다는 점등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인사에서 일선업무량과중과 인력부족현상을 감안하여 3개지방검사장급 자리및 19개고등검찰관급 자리는 공석으로 뒀으며 검찰조직의 안정을 위해 당분간 후속인사는 없다고 밝혔다。이밖의 검찰간부급 인사내용은다음과 같다。

▲법무부기획관리실장 金世權(大田지검장)▲〃법무실장 李準昇(대검공판송무부장)▲〃송무담당관 韓永錫(서울지검제2차장)▲사법연수원부원장 徐廷信(서울지검제1차장)▲대검총무부장 姜容求(春川지검장)▲대검형사2부장 崔相曄(법무부검찰국)▲서울고검차장검사 金斗喜(〃)▲서울지검남부지청장 趙鏞樂(서울고검)▲〃북부지청장 金珍奭(〃)

鄭致根 검찰총장에 全대통령이 任命狀

全斗煥 대통령은 17일상오 청와대에서 鄭致根신임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주었다。이자리에는 李鐘元법무부장관과 金容烋총무처장관이 배석했다。

◇李永旭 법무차관▲50세·馬山출신▲馬山商高·서울법대▲고시8회▲木浦지청·부산·서울지검 永同지청장▲淸州지검 부장▲부산지검차장검사▲大邱지검검사장

◇徐東權 대검차장▲50세·경북永川출신▲慶北中·高大법대졸▲고시8회▲서울지검검사▲大邱지검부장검사

◇金錫輝 서울고검장▲46세·충북淸州출신▲서울법대졸▲고시8회▲淸州지검검사▲대검수사국제4과장▲서울지검특별수사부장▲서울고검검사▲청와대사정담당비서관실파견근무▲서울지검검사장

◇金聖基 大邱고검장▲46세·서울출신▲서울高·서울법대졸▲고시8회▲淸州지검검사▲대검수사국제4과장▲대검특별수사부제2과장▲서울지검특별수사부장▲光州지검차장검사▲대검총무부장

◇裵命仁 光州고검장▲49세·경남昌原출신▲서울법대▲고시8회▲淸州·釜山지검검사▲서울지검부장검사▲大邱지검차장▲光州지검장▲법무부검찰국장▲대검차장

◇李明熙 법무연수원장▲48세·충남保寧출신▲서울法大▲고시8회▲全州지검井邑지청·서울지검水原지청·서울지검검사▲大田지검부장▲淸州지검차장▲서울고검검사▲全州지검차장▲水原지검장

◇신임 鄭致根검찰총장이 17일상오 청와대에서 수여받은 임명장을 왼손에쥐고 대검8층에있는 검찰총장실로 들어서고있다。

肥料값引上線 큰異見

政府 〃최소19%〃 民正〃秋穀價 인상이내〃

民正黨政策委농수산분과위는 17일상오 黨舍에서 高建농수산부장관과 경제기획원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료값인상문제를 협의했으나 黨과 정부간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한차례 더 모임을 갖고 절충키로 했다。

이날모임에서 정부측은 累增되는 비료計定赤字해소를 위해 최소한 19%는 인상해야한다고 밝혔고 民正黨측은 올해秋穀收買價인상선인 14%이상 인상은 곤란하다는의견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北傀 外交官또密輸 방글라데시서 抑留

방글라데시에 주재하는 北傀대사관직원이 密輸혐의로 稅關에 억류됐었다고 방글라데시의 英字日刊紙인 새터데이·포스트紙가 지난12일 보도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완전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여행사
IATA
교포특별우대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동주

謹賀新年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교민 여러분의
무한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미시사가 오토·콜리존
275-3131 정창헌

농성勞動者 무더기逮捕

波軍、裝甲車몰고 레닌造船所급습

◇바르샤바市內 순찰중인 波軍장갑차 폴란드육군의 장갑차 2대가 지난13일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바르샤바시내 중심가를 순찰하고있다。 【바르샤바16日AP電送=聯合】

【빈17日UPI=聯合】장갑차를앞세운 폴란드군이 16일 새벽(한국시간17일) 자유노조의 발상지인 그다니스크 레닌조선소의 정문을부수고 조선소 내부로 진입, 건물을 무너뜨리고 차량을파괴하면서 농성중이던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체포했다고 폴란드로부터 나온 보도들이 전했다。

보도들은 이날 폴란드군의 조선소 진입당시 사상자가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었으나 조선소 구내에있던 많은 목격자들은 당시 일부노동자들이 새벽추위를 피해 차속에 앉아있다가 폴란드군의 장갑차에받혀 객차와 함께 전복됐기 때문에 그속에 갇혀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戒嚴선포抗議에 단호히 對處
밖에선 抵抗촉구傳單

폴란드당국이 이같이 레닌조선소 구내에 군을 투입시켜 강경한 자세로 나온것은 구국군사평의회가 계엄령선포에 대한 노동자들의 항의에 단호히 대처할 결의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선소에는 장갑차를 동원한 폴란드 정예공수부대 요원들외에도 내무성 소속의 비밀경찰대원들이 진입, 노동자들을 붙잡아 신분이 확인되는 사람만 한사람씩 조선소 밖으로 내몰았으며 공중에서는 6대의 헬리콥터가 계속 감시비행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군의 갑작스런 기습에도 불구하고 조선소밖에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선동하는 전단이 나돌았는데 자유노조의 이름으로된 전단은 우리가 오늘 저항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수년간 자유에 대한희망은 사라지게될 것이라면서 『수천명이 1천만명(자유노조원)을 파괴시킬수는없다』고 강조했다。

"罷業同調하면 最高사형까지"
폴란드당국、學生들에警告

【빈16日路UPI=聯合】폴란드당국은 16일 학생들과 젊은 노동자들에대해 총파업에 가담하지말도록 경고하고 만약이들이 참가할경우 최저2개월의 징역형에서 최고사형까지의 벌을 받게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영 바르샤바방송은 자유노조가 지난70년의 그다니스크파업사태11주년기념을위해 계획한 총파업은 지난13일 선포된 계엄령으로 불법화됐다면서 파업에 가담한경우의 형량을 자세히 언급, 학생과 노동자들의 자제를촉구했다。

또 국영TV방송도 사태만 진정된다면 당국이 계엄령을 철폐하고 노동및 사회개혁을 계속 추진해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蘇、對波입장 돌연硬化

【모스크바16日新華=聯合】소련은 16일 갑자기 폴란드사태에대한 그들의입장을 경화하고있다。

외교소식통들은 소련의 이같은 태도돌변이 단순한 모스크바의 전술적움직임인지 아니면 폴란드사태를 우려되는 바와 같이 최악의사태로몰고갈 신호를 의미하는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해석을 내리지못하고있다。

지금까지 소련전문가들은 폴란드군사정부가 바르샤바군대의 진주와같은 외부의 원없이 폴란드사태를 스스로 해결할 마지막기회에 직면한 것으로 보아왔으나 크렘린이 폴란드에 대해군사행동을일으키진않을것으로생각해왔다。

그러나 소련이 그들의 입장을 경화한 것은 적어도 폴란드에 대한 소련의 또하나의 새로운압력수단일수있다고 관측통들은 지적하고 있다。

사하로프、人權運動 계속
보네르夫人 "위대한勝利" 다짐

【모스크바16日UPI·AP=聯合】소련의 반체제 물리학자 안드레이·사하로프박사는 17일간의 단식투쟁으로 몸이 쇠약해져있지만 소련에서의 인권운동에 계속 정진할것이라고 사하로프 박사의 부인인 엘레나·보네르 여사가 16일 전했다。

보네르여사는 이날상오 고르키市로부터 8시간의 기차여행후 모스크바의자택에 도착, 기자들과만나 그같이전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얻은것은 헬싱키협정에보장된 기본권들중의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골란 合併무효 國際法·유엔原則에 違背"
시리아、安保理에 宣言촉구

【유엔本部16日UPI합=聯合】시리아를 비롯한 아랍국가들은 16일 유엔안보리에대해 이스라엘의 골란고원합병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에 합병조치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디아·알라·엘·파탈 시리아대표는 이날 상오11시30분(한국시간 17일 상오1시30분) 시리아 측의 요청으로소집된 유엔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합병조치가 국제법과 유엔원칙의 위배라고 비난하면서 안보리의 합병무효화선언을 촉구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에 대해서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성을 되찾도록 종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합병조치와 관련하여 아랍측이 발의할 이스라엘규탄결의안을 안보리가 채택할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만일 이스라엘이 합병취소결의안을 무시할 경우 안보리는 對이스라엘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波人8명、日本에 亡命요청

【東京17日=宋孝彬특파원】나고야(名古屋)항에정박중인 폴란드화물선 선원과 그가족 8명이 16일밤 나고야경찰에 망명을 요청했다。

일본외무성은 17일 이들의 망명요청을 확인하고 망명국에 송환키로 방침을세웠다。

이들이 타고있던 화물선은 6천9백23톤의 웍니안헬로호로 모두43명이 타고있었으며 약4천톤의 일본쌀을싣고 19일 폴란드로 귀국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귀국하면 체포될것이 예상돼 귀국을 단념했다고 밝혔다。

◇世界 디스코댄스選手權者 남아프리카의 미셸·토마스 (18) 양이15일밤 런던의 엠파이어무도회관에서 열린 세계 디스코댄스 선수권대회에서 열연, 우승을 차지했다。 【런던15日AP電送=聯合】

美、이措置에 激怒
헤이그 "友好관계損傷" 비난

【워싱턴16日AP=聯合】알렉산더·헤이그 미국무장관은 에프라임·에브론 미국주재 이스라엘대사와 만나 이스라엘이 골란고원을 합병한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미국무부소식통들이 16일 밝혔다。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에브론대사는 헤이그장관에게 이스라엘이 골란고원 합병결정을 사전통보하지 않은것은 이스라엘의 조치를 미국에알림으로써 美國을 당황하게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했다。

「새價値운동」展開
能率協會 내년에

韓國能率協會는 상품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현 불황을 타개할수 없다고 지적、새해에는 기업들이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도록하는 「새가치운동」을 전개하기로했다。

元容奭 能率協會회장은 17일 새해업무계획을 확정、경영인이나 근로자들은 생산판매전략을 수립하거나 상품을 생산하는과정에서부가가치를 높이는 자세를갖고 이에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때우리경제는 고도성장을 시현할 수 있게될것이라고 판단、이같이 새가치운동을 전개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메아리

3만달러짜리 인형이 있다면 아마 혀를 찰것이다。 기네스북엔 실제 이런 기록이 있다。 옛날옷을 입힌 높이 55·8㎝가 되는 물푸레나무인형。 남녀 한쌍으로 만들어진 이 인형은 1974년 런던에서 경매에 붙여져 약 3만달러에 낙찰되었다。 엄청난 값어치에 놀랐는지 영국은 이 인형의 해외반출을 막았다。 그래서 빅토리아 앨버트박물관에 정중히 모셔졌다。

인형은 장난감이나 관광토산품의 기본이다。 호주로 수출된 우리 인형이 「위험」딱지가 붙여져 잠정적으로 판매가 금지된 수치를 당했다。 사용상의 부주의 탓인것으로 밝혀졌지만 틀림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반성거리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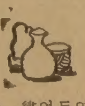
우리 어린이들은 「장난감빈곤」속에서 살고있다。 지난해를 기준, 어린이 한명이 한해 장난감을 사는데 평균9천원을 썼다。 미국 9만7천원, 英·佛·日등 8만원이라는 평균과 비교할때 10분의1밖에 안되며 그나마 조잡스러워 짜증이다。

한국을찾는 외국관광객의 불만은 흔히 인형에서 찾아진다。 싸구려 원단을 쓴데다 재봉도 엉성하다。 게다가 그 모양이 도무지 국적불명이다。 「한국의특색」이 없는 것이다。

구레나룻을 단 탈도 있다한다。 관광의 기본행동은 보고 즐기고 쉬고 그리고 먹고 토산품을 사는 일이다。 금년 11월말현재 우리나라를 다녀간 외국인은 71만여명으로 작년보다 15%가량 늘었다고한다。

이들이 과연 「한국의 추억」을 간직한 기념품을 사갔을지 딱한 생각마저 든다。 외국인 여행자들만 아니라 국내관광객도 불만은 마찬가지다。 명승지 어디를 가나 토산품은 千篇一律이고 부실하다。

民藝品의 개발



상공부는 올림픽特需를 겨냥하여 민예산업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수공예품을 중심으로 52개품목을 지정하고 지원하리라고 한다。 이것은 관광진흥과 연결 시켜야 한다。

토산품제조업자들이 대부분 영세성때문에 낙후를 못면하고 있지만 그 타개책은 아이디어와 「손의 정성」에 달렸다。 지금부터 백지로 출발해야 한다。 우리에겐 개발능력이 잠재해 있다고 믿는다。 아기자기한 우리 古美術의 솜씨가 그 자질을 충분히 입증해 준다。

黨기능停止…계엄長期化전망
蘇서 方向전환默認할지疑問
強硬세력 沈默시킨후 勞組內온건파와 妥協
——西方、폴란드事態분석

【런던16日路·AFP=聯合】야루젤스키장군이 이끄는 폴란드 救國軍事評議會는 계엄통치를 장기화, 지금까지 이나라를 지배해왔던 공산당의 기능을 정지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레흐·바웬사를 비롯한 自由노조의 온건세력과의 타협을 모색해 나갈것으로 폴란드자유노조에 정통한 런던의 정세분석가들은 내다보고있다。

이 분석가들은 구국군사평의회가 계엄통치를 향후 수년간 지속하면서 모든정치활동을 금지할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노조의 강경행동주의세력을 침묵시킨후 이노조의 온건세력과 타협을 모색할것이라는 관측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본의 정보분석가들도 폴란드 군부가 계엄선포후 軍기관지를 통해 발표한 호소문에서 기존 공산당에 관한 언급은 전혀 비치지않은 사실을 의미깊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이를 자유노조내의 행동주의파들을 고립시키면서 이나라의 국난을 극복해 보겠다는 야루젤스키장군의 결의의 표시로 받아들이고 있다。

폴란드공산당의 정치지도력을 不信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단으로 금기시돼 왔다。

야루젤스키장군은 계엄 선포전 공산당내 강경파로부터 강경책을 쓰라는 압력을 받았다。

칭되는 黨內강경파 진영은 기에레크 前黨제1서기와 다른 회의고위당직자들을 권력부실과 부패혐의로 심판하려는 계획을 제지했었다。

이 시멘트그룹은 지난 7월 있었던 中央委선거에서 진보계당원들을 상대로 추잡한 역선전공세를 폈었다。

바르샤바에서 전해지는 일부보도들은 黨內강경파의 기수로 알려진 정치국원 스테판·올조프스키가 계엄선포직후 다른 당내실력자들과 함께 당국에 체포됐다고 전하고 있다。

당중앙위본부건물을 방문했던 일단의 기자들은 몇몇 하급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실력자들을 전혀 만나볼수 없었다。

런던의 자유노조 소식통들은 폴란드의 구국군사평의회가 자유노조 온건세력과의 타협을 모색해나갈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소련이 과연 폴란드의 이같은방향 전환을 묵인할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일 소련이 야루젤스키의 이같은 행동변화를 묵인하지 않으려든다면 그 대안은 소련군을 폴란드내 투입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波사태에 초조한西歐銀行들

◇罷業委 선언문읽는 波학생대표 폴란드학생들이 바르샤바의 한교회앞에서 「中央파업위원회에 全權을」이란 선언문을 낭독하고있다。 【바르샤바17日電送=聯合】

西方 501개銀行이 270억弗빌려줘
早期수습안되면 연쇄破産
東西블럭간의 交易도冷却

헝가리·체코사태와는 달리 西方선진국들은 이번 폴란드사태를 靜觀하는 입장을 택하고 있다。 東西교역상 利害관계가 폴란드정세에 따라 가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폴란드 군사통치를 바라보는 서구정계와 금융관계자들의 마음은 몹시 초조하다。 폴란드사태가 만약 경제파탄을 불러 서방에 진 빚을 못갚게 되는 날이면 동서간 경제거래의 토대는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5백1개 서방은행과 각국정부가 지금까지 2백70억달러를 빌려주었다。 폴란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서방은행과 각국정부는 폴란드정부가 빚을 못갚을 경우에 몰린 나머지 채무를 못갚겠다고 선언해버릴까 두려워 부채의 상환기간을 더 연기해 주겠다고 제의했다。

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것이 뻔하다。 서방에서 모두 7백50억달러를 빌어 쓰고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 동구각국이 이런사태로 그나마든 줄을 끊어버린다면 공산정권의 존립이 흔들릴 판이다。 동구의 大兄 소련의 주머니도 비어 있으니 어떻게 손써볼 도리가 없다。 다음 5개년경제계획의 재원 1백40억달러를 시베리아 天然가스를 서방에 팔아야만 겨우 충당할까말까한 소련이다。

폴란드는 그동안 동서 정치경제역학관계에서 위험한 水平을 잡아주고 있던 지렛대였다。 서방은행과 금융관계자들은 폴란드의 군사통치가 매우 달갑지않지만 기우는 경제를 바로 세워 높은 生産性을 회복시키는 최후의 노력이라고 널리 받아들이고 있다。 이 최후의 노력마저 실패한다면 폴란드에 찾아오는것이라곤 재정파탄뿐이라는 것이다。 이들 당장의 소망이라면 군사통치가 신속하게 폴란드의 공장과 탄광을 정상조업토록해서 빌어간 빚을 빨리 갚도록 해주는데 있다。 빈털털이 폴란드에 도합5억5천만달러를 물려줄테니 4억5천만달러의 이자만이라도 갚아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이자를 갚아주면 금년말까지 채무의 상환기간을 연기해줄 협정을 체결해줄 것이라고 했다。

특히 폴란드에 단단히 물린 서독의 불안은 대단하다。 지난주 서독의 도이체·뱅크는 폴란드에 또 돈을 빌려주어 그 돈으로 이자율이 높고 상환기간이 짧은 소위 악성부채를 갚도록 해주었다。

폴란드군사정부가 기우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것을 소망하면서도 서방은행과 정부는 자유노조의 폴란드군사정부에 대한 저항이 거세어져 경제가 회생할수 없게시리 마비돼버리고 소련이 침공해버리는 사태가 오지않을까 염려한다。 사태가 이렇게 되어 폴란드가 결국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나올때에 대비해서 서방채권자들은 서방에 나와있는 폴란드의 선박, 비행기, 은행예금과 기타 모든 자산가치 있는 것들을 차압할 최후수단을 준비해놓고 있다。

이런사태가 오지않기를 바라는 소망은 동구쪽이 더 간절하다。 폴란드를 제외한 다른 동구각국도 서방은행에서 돈을빌려야만 물자를 수입할 수있을만큼 형편이 핍박하다。

폴란드의 파산선언은 동서무역의 끝장을 의미한다。 소련이선뜻 폴란드에 쳐들어가 자유노조를 짓밟을 엄두를 못내는 중요한이유는 폴란드의 엄청난 서방부채 때문이라고 서방전문가들은본다。 폴란드를 점령하면 소련은 그빚을 짊어지지 않을수없게돼있다。 막상 군사통치를 선포했으나 동서의이같은 착잡한 이해관계속에서 외줄을타는 야루젤스키의 마음은 어떨까。 【崔相鎬기자】

言界의 社說

戒嚴에도 폴란드破壞안돼
●더 타임즈 (英·16日字)

폴란드국민의 힘은 군대에 의존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엄이 발동됐다고해서 파괴된것이 아니다。 소련이 침공을 꺼리는 모든요인은 아직까지 존재하고있다。 폴란드는 소련이 쉽게 집어삼키기에는 너무크고 완강하며 다루기 힘들다。 소련은 폴란드보다 작고 다루기 쉬운 체코를 침공한 뒤 13년이된 오늘날까지 그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실패했다。 소련은 서방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수도 있음을 고려, 아직까지 폴란드침공을 최후의 최악의 해결책으로 간주하고있다。 이사실은 폴란드국민이 아직까지 현상을 용납할수있는 범위내서 협상을통해 사태를 해결하라는 힘을 가지고있으며 폴란드정권은 소련정부의 사주를 받고있음을 뜻한다。 소련과 폴란드정부는 대중의 실질적지지를 받지못하는 어떤 해결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폴란드 경제위기를 해결할 원동력을 양성할수 없음을 명백히 알아야한다。

波계엄、신중한計劃따른것
●뉴욕타임즈 (美·14日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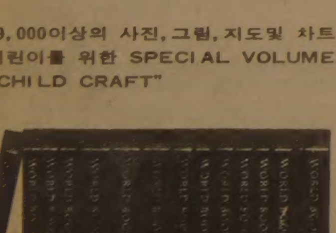
오랫동안 우려해왔듯이 공산당의 1당지배를 거부하는 대중의 반항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다。 수개월동안 소련은 자유노조의 분쇄를 요구해왔다。 그것도 폴란드 독자적으로 분쇄하는 것처럼 꾸미려 했다。 그러나 소련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왜 야루젤스키장군은 여태껏 기다리고만 있었는가。 그는 아마도 자유노조의 과격파지도자가 정치권력에 도전하기 전까지는 당내에서 광범한 콘센서스를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위기라는 것은 핑계다。 야루젤스키가 취한 행동은 수주일동안 신중한 계획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야루젤스키는 무력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폴란드문제도 해결할수 없다고 말할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무력은 폴란드를 유혈저항과 국민의 사기가 꺾인상태의 평화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WORLD BOOK —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낮 533—2361
밤 242—5774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신 품 : $99이상 ➟중고품 : $10이상

영업시간
9 : 30~6 : 00 월, 화, 수, 토
9 : 30~9 : 00 목, 금

202 SPADINA AVE.
☎ 363-6077 MRS. PARK

海記飯店
HOI KEE REST.
— 싱싱하고 맛있는 —
달팽이 요리, 게 요리,
가재 요리, 조개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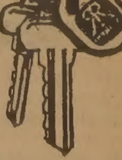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 업 일 :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 이 광고를 갖고오십시오. 10% 할인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시성
(B)497—0600
(R)298—8558
D.R.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投審委 의결생략

外國人투자 認可절차 대폭완화

百萬弗이하

期間도 30~60일로 短縮

事後관리업무 國策銀에 위임도

모든 認許可대상업무 申告로 처리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키위해 1백만달러이하의 외국인투자에대해서는 外資事業投資審査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는등 인가절차를 대폭간소화하고 모든 認許可대상업무처리기준을 대폭완화해서 신고사항으로 처리키로했다。 또한 외국인투자인가기간을 현행8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등 각종 외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외국인투자의 등록이후 사후관리업무는 國策은행등 관계기관에 대폭 下部委任키로했다。

17일 재무부가마련한 외국인투자업무효율화방안에따르면 현재 1천만달러 이하의 외국인투자는 관계부처의 의견조회, 외자사업투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무부장관이 인가토록하고 있는데 내년상반기중에는 外資導入法을 개정, 1백만달러 이하의 適格업종에 대한 외국인 신규투자는 投審委의 의결을 생략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및 재무부 검토만으로 인가하며 1백만달러이하의 증액투자로서 외국인투자 비율에 변동이 없을때는 관계부처의 검토를 생략하고 재무부검토만으로 인가토록한 방침이다。

또한 배당금에 의한출자、도입후 5년이지난 외자처분허가、內國人만의 출자등 유리한 외국인투자비율변경등은 현재는 認許可를 받아야하나 앞으로는 모두신고만으로 처리토록할 방침이다。 기술도입계약도 재무부는 정책통괄 통계업무만 취급하고인가및 사후관리는 주무부처로 넘길예정이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17일부터 ▲도입자본재재검토승인은 재무부장관승인에서 주무부장관승인으로▲외자처분허가는 주무부의견조회없이 재무장관승인만으로▲품목추가인가는 投審委의결을 생략하고 주무부의견조회와 재무장관인가만으로▲등록된영업이외 영업허가는 他社출자인 경우 주무부의견조회를 생략하고 ▲인가조건변경승인은 投審委의결생략▲외자사용계획변경승인은 주무부의견조회를 생략토록했으며 내년부터는 배당금및 원본회수송금도 재무부장관대신 외국환은행장의 허가만받도록했다。

재무부는 또 외자도입법시행규칙을 곧개정、각종업무처리기간을▲외국인투자인가는 현재80일에서 자동및 준자동인가는 30일 기타는60일로▲계약내용수정및 사업계획조정사항은 60일을30일로▲외자도입기간연장허가는60일을 15일로 ▲외자사용계획변경승인은 60일을 자체처리는 15일、관계기관조회후 처리는 30일로 ▲배당금송출자는 신고7일 인가80일을 신고7일만으로 ▲외자처분허가는60일을 신고7일 기타30일로▲등록된 영업이외 영업허가는 60일을 40일로 ▲품목추가인가는 80일을 40일로▲외국인투자비율변경승인은 60일을 신고 7일만으로▲인가조건변경승인은 60일을 40일로▲등록취소는 60일을 40일로 각각 단축키로했다。

借款 7천6백37만弗승인

外資導入심위

外資導入심의위원회는 17일 경제협력업무가 재무부로 이관된뒤처음으로 회의를 갖고 4건7천6백37만5천달러의 차관도입을 승인했다。

이날 外審委가 승인한 상업차관도입은 지난번 外資사업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것으로▲韓國放送公社가 방송망확장 장비도입을위해 英國과이 TVT회사외 2개사부터 3천6백87만5천달러▲韓國輸出入은행이 大宇造船과遊船公社의연불수출선박용 소요자재수입을위해 英國 인터내셔널 웨스트민스터銀行으로부터 2천만달러▲三富實業이 한치선망어선 2척도입을위해 美國루이스빌 퍼스트내셔널銀行으로부터 1천1백만달러▲三星造船이 제2도크건설용 시설재도입을위해 홍콩파리바스 아시아會社외 1개은행으로부터 8백50만달러를 들여오는 것등이다。

「輸出」部品에 力點

徐商工 내년世界交易量4~5%늘展望

◇徐錫俊상공장관은 수출한국의 앞날은 정부와 업계의 이해와 단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徐錫俊상공장관은 정책금리와 일반금리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상하는 방식의 종전 수출정책이 더이상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徐장관은 17일 상오 서울시내 무역회관 무역구락부에서 있은 貿易協會초청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내년도 수출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지만 그런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합심이 안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徐장관은 올해 수출목표 2백5억달러가 초과달성될 전망인데도 自祝보다는 반성과 각오의 기분이 앞서는 것은 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일것이라고 말하고 수출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과거처럼 무리한 방법으로 숫자를 채우는식의 수출정책은 지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徐장관은 이어 對美 신발류 수입규제가 해제된 후 국내업계에서 벌이고 있는 과도한 경쟁상태를 예로들면서 기업도 정책에 불만을 말하기에 앞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徐장관은 내년도 세계교역량이 올해보다 4~5%늘 전망이어서 우리의 수출전망도 어둡지는 않다고 강조하고 다만 정부와 업계 그리고 업계 스스로가 얼마나 힘을 합해 이에 대처하느냐에 수출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말했다。

徐장관은 앞으로의 수출정책은 산업정책의 內實化와 관련, 부품수출에 역점이 두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국내업계도 경제성이 있는 부품 국산화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通關등 수출제도및 행정의 경직적인 운용으로 수출에 애로가 많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상공부안에 「수출애로타개 기동반」을 설치, 크고 작은 수출애로를 즉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原電受注 경쟁치열

11·12號놓고 美·佛·日등 5國서

韓電이 내년도에 入札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인 원자력발전11호기와 12호기의 受注를 둘러싸고 美·佛·日·西獨·카나다등 5개국 6개사가 벌써부터 탐색전을 벌이고있어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있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11호기와 12호기의 1차계통입찰에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제너럴일렉트릭、프랑스의 프라마톰、西獨의 KWU、日本의 미쓰비시、카나다의 AECC등이 참여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한전은 내년1월중에 프랑스 알스톰社와 9호기와 10호기의 2차계통계약을 체결하면 곧 11호기와 12호기의 1차계통입찰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전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9기중 8기가 加壓輕水型이며 1기만이 加壓重水型인점을 감안、原電관리상 능한한 같은 爐型을 선택하되 금리와 차관조건등을 감안하여 안할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중공업 負債2백32억

3年거치 2년분할상환게

經濟長官협의회

경제장관 협의회는 17일 효성중공업에대한 産銀대출금 2백억원을 出資로전환하고 金融부채 2백32억원을 3년거치 2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상환을 유예키로한다。 경제장관 협의회는 또 産銀대출금의 出資전환과 아울러 효성그룹에대해 2백억원을 現金出資하도록 의결했다。

社債발행 1조突破

昨年比6·9%증가

기업체들의 회사채발행액이 17일 사상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납입된 회사채는 총4백39건 1조90억7천6백만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연말까지는 1조3백억원수준에 달할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회사채발행규모는 작년의 9천6백37억원에 비해 6·9%가 늘어난 수준이다。

나의 이력서

〈題字 元一漢〉

元一漢 ⑲

「검은 오리」號의 孵化

모터에 한국식櫓도 두개달아

꿈의 보트 「검은 오리」호는 하나에서 열까지 한국의 배를 모델로해서 건조했다。 아버지는 仁川항의 간만의 차가 28피트나되고 灣의 입구가 좁은 것을 고려, 배가 갯벌위에서도 반듯이 정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배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것이다。 배는 길이가 22피트、폭이 6피트로 최소한 6명이 먹고 잘 수 있는 크기였다。 배가 건조되는 동안 어머니는 『빨리 타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고、이때문에 2살난 동생 리처드·언더우드(한국이름得漢)는 『배타러 간』란 말을 빨리 배울정도 였다。

「꿈의 보트」는 돛대와 용골까지도 한국배처럼 만들었다。 과학지식이 없어 압력이나 저항중심같은 것을 무시하고 금속으로 된 방수테두리를 돛아래 부착시켰다。 배의 겉모양을 다만들고보니 조타실을 만드는것이 문제였다。 배바닥이 평평해서 조타실을 설치할 자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궁리끝에 조타실을 없애고 모터를 배뒤에 붙였다 떼었다하는 방법을 택했다。

아버지는 YACHTING誌에 기고한 글에서 「검은오리」호에는 바람을 이용하는 돛대가 있었으나 그보다는 다른 추진력이 필요해 모터를 달았다고 기록하고있다。 나는 「검은오리」호가 한국최초의 모터보트가 아닌가 생각한다。 모터를 사용하지 않을때에 대비、한국의 길다란 노를 배양편에 달았다。

아버지의 기록은 1904년 일본함대가 仁川앞바다에서 격침시킨 러시아함대 잔해가 1929년까지 해면에 깔려있었음을 알려준다。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여 건조한 「검은오리」號。돛대위에 오리를 그려넣은 깃발이 보인다。

完成후 人夫15명고용 로프와 장대로 漢江에 進水

아버지는 러시아함대잔해 2개를 배만들 재료로 5달러에 구입했다고 이기록에 밝히고있다。 보트건조는 1백45달러에 일본인에게 맡겼다。목재는 스기나무를 2인치 두께로 사용했다。

아버지도 보트건조는 처음인데다 배에 대한 지식도 엷어 YACHTING誌에 실린 그림이나 배의 스케치를 많이 참고 했다는 술회를 들은바 있다。

이때 배의 건조에 들어간 돈은모두 5백52달러로 노임이 싸 큰덕을 보았던 것같다。

배가 건조된 장소는 한강변에서 2백m가량 떨어진 곳으로 기억한다。막상 배를 다만들고나니 이를 물에 띄우는것이 문제였다。 선체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않고 물위에 띄우는데 다시 5달러가 들었다。 인부 15명이 로프와 장대로끌고 달아올려 완벽하게 해냈다。

『장정들이 배를 떠메고 물가로 나아갔다。무릎을 구부려 바닥부터 내려놓는 순간은 아주조심스러웠다。

나는 배를 만들기 했으나 물에 띄우지못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만화를 읽은적이 있다。 나는 그만화가 현실로 나타날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그렇지않았다。「꿈의 보트」는 물위에 가볍게 떴다。마치 그이름 오리(DUCK)처럼』

아버지는 이순간 깃발을 펄럭이며 꽃에 묻혀서 자신의 배가 진수되는것을샴페인을 터뜨리며 바라보았다는 어느억만장자보다 더감격스러웠다고 쓰고있다。 이렇게 우리집 꿈의 보트는 한강에 떴고 황해바다를 누비며 九味浦까지 항해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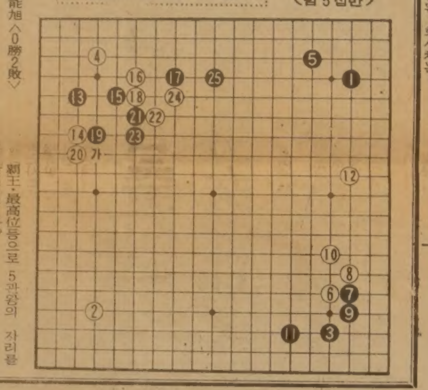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0局 第1譜 1~25 (각 5시간 덤 5집반)

白(6段) 徐能旭 〈0勝2敗〉

黑(7段) 徐奉洙 〈1勝1敗〉



徐7단의 近況에 관해서는 본란에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두가지일이 있다。

우선 라이벌인 曺薰鉉8단과의 두 타이틀戰 결과와 다음 12월초에 徐能旭6단과 함께 日本에건너가 그쪽 정상2명과 친선대국을 둔 일이다。

曺8단과의 國手戰및 最高位戰의 도전5番勝負 바둑을 동시에 둔 일은 중간전적과 함께 이미 소개한바 있지만 결국은 徐7단이 國手戰결국을 한번 이겼을뿐, 계속 3패를하여 도전에 실패했고 最高位戰은 3대0으로 연패하여 타이틀을 덧없이 잃고말았다。

그러니까 두 타이틀戰 도합10판을 6대1로 참패한것이거니와 이것으로 徐7단은 王位·棋王 두개타이틀로 줄었고 한편 曺8단은 名人·國手·棋王·覇王·最高位등으로 5관왕의 자리를 굳힌 것이다。

初盤은 「徐戰」으로

새삼 말할필요도없이 현재 한국기계는 曺·徐 두棋士가 그판을 다투는일로 역사를 장식하고 그런대로 팬의 성원을 받아가는 실전인데 이들을 위협할 고단자및 청소년의 부족는 차치하고 무엇보다 5대2로 양분한 이들의 사투는물론 여전히 대한관심거리로서 이어져나갈것같다。

白6은 7자리에 日字걸침도 한수있는 곳이지만 徐6단은 白12까지 흔히 쓰는 정석으로 느긋이 출발한다。

그러나 黑13의 당연한 걸침을당을때 白14의 협공으로 젊은 혈기를과시한다。 14는 「가」자리에 협공하는 형이 요즘 하나의 유행을 이루고있는 첫이다。

이하 白24、黑25까지도 정석의 과정。아직은 포석의보기같은 진행이다。 【一凡】

한국일보
533-2361

提言

88올림픽을 契期로 共産圈同胞 초청을

組織委에 部署둬야

해외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도 오지 못하는 동포들이 많을 줄 안다。 특히 중공·사할린등 공산권에 사는 동포들의 안타까움은 말할수 없으리라 여겨진다。

우리는 86년에 아시안게임、88년엔 세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어있는데 이기회를 이용、해외동포、특히 공산권에 거주하는 동포의 초청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

지난64년 동경올림픽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있는 친지들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한적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문제는 공식외교경로보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등 비공식적통로를 통해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위해 이미 구성된 올림픽조직위원회에 해외동포 초청업무를 전담하는부서를 두는것도 한방법일것같다。 【장주성·서울麻浦區西橋洞327의18】

공휴일 많은걸로 주슈

【황성수·서울도봉구창1동304호 13통1반】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여보,그건 제 향수에요!" "찰삭 찰삭"

"난 면도후에 바르는 로숀으로 생각했지 뭐야!" "서둘러요,늦었어요!"

"아마 아무도 눈치 못챌거야" —쪽—

한국일보 詩壇

山居日記

李準燮

뻐마름이 흠뻑 젖는
내 영혼 가지마다
산새들 고운 音律
귓속말로 가기는데
청청한
하늘 깊이로
흘러오는 山曲 하나。

산그늘 응달 속엔
가난도 아침 이슬
먼지낀 찬 바람이
예까지 와 탱탱 불라
山寂寂
연주른 숨결 속에
쌓이는 虛空이여。

하늘 겹겹 쌓인 가슴
樹波도 흐르는가
잠이 모룰 山谷 사이
팔베개로 누워서
풀잎들
꿈빛을 모아
안 꺼진 燈을 켠다。

주간女性
(416) 533-2361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서울식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謹賀新年

즐거운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교민 여러분의
무한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KAWAI피아노
883-9407, 881-8211
윤 호 섭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人夫18명추락…9명死亡
바위틈에 낀 1명 救助기다려

濟州 天帝淵 제2폭포위 신축중 懸垂橋끊겨 慘事

어제下午…직경6㎝ 와이어로프 풀려
순식간에 事故, 25m 떨어져 8명 重傷

【濟州】17일하오3시15분께 제주 西歸浦市中文洞에있는 관광명소 天帝淵 제2폭포위를가로 지르는 관광용 구름다리 현수교(懸垂橋)가 25여m 아래로 끊어져 내려 다리설치공사중이던 인부 18명이 폭포로 추락,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이 바위틈에 끼여 하오6시현재 구조를 기다리고있다.

이날사고는 현수교동쪽 기둥에 연결된 직경6㎝의 와이어로프가 풀리면서 다리가 폭포아래로 떨어져 일어났다.

이날 구름다리공사 현장에는 모두 16명이작업중이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내려앉은 것. 사고가 나는순간 인부 6명은 미처 피하지못하고 다리밑 폭포로 추락했고 지상에 가까이있던 사람들만 사고를 피할수 있었다.

이날 天帝淵폭포에는 관광객1백여명이 몰려있었으나 순식간에 사고를당한 인부들이 폭포속으로 빠지거나 바위에부딪쳐 미처 손을쓸수 없었다.

경찰은 암벽에 끼어있는 인부2명을 구조하기위해 줄사다리등을동원, 구조작업을 펴고있다.

사고가난 현수교공사는 제주관광개발공사가中文관광단지를찾는 관광객을위해 中文단지와 폭포동쪽사이를 자유롭게 다닐수있도록 하기위해 길이 1백28m, 폭4m의 규모로 건설중이었다. 이 다리는 폭포 동서 양쪽에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철탑을 세워 와이어·로프로 다리를 붙들어 매는 공법으로 시공해 왔다.

이 현수교공사는 삼성종합건설로부터 하청을받은 富鋼산업이 지난해 12월15일 착공, 금년말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이날현재까지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었다.

중경상자들은 西歸浦 시내 병원으로 옮겨치료중인데 사망자가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이시간 현재 밝혀진 사망자는 다음과 같다.

◇사망자
▲김창근(21) ▲염순하(27·전남) ▲서한춘(30) ▲이종호(38·서울강서구 방화동)

◇중상자
▲박용규(30) 【聯合】

◇慘劇의 觀光地 추락사고가 난 제주도 中文관광단지의 천제연제2폭포. 이 폭포위를 지나는 현수교가 건설공사중에무너져 참사가 빚어졌다.

土地사기 4개派 18명拘束
인감등위조 45億상당 가로채

서울지검北部지청형사2부(李元煒부장검사·羅炯洙검사)는17일 45억원상당의토지를 인감등을 위조, 가로챈 대규모토지사기단 4개파 25명을 적발, 이중18명을 공문서위조·동행사및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3명은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金光植과(46·상업·서울城北區下月谷洞81의439) 13명은 지난10월하순께 경기도仁川市 南區朱安洞57~67일대 임야 1만1천평이 일본인 伊藤米松씨와 辻良藏씨 공동명의로 되어있을뿐 등기부상에 국유지로 환수돼 등록되어있지않은 사실을알고 전남光州에 사는 表昌柱씨(일본창씨명 山本義明)와 충남 牙山에 거주하는 孟의제씨의 창씨명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자기들의 창씨명을 지우고 그대신 두 일본인 이름으로 고쳐넣은뒤 임야소유주로 둔갑시켜 表씨 孟씨의 아들들이 상속받은 것으로위조한다음 이를 다시 구속된 金光植파의 李熙均씨(38·전남光州市鶴洞81의44)의 이름으로이전등기하여 가로챈것을비롯 지난10월초부터 3회에걸쳐 모두 39억4천여만원상당의 토지 3만5천평을 가로 챘다는것.

또 金達鎭파(50·강원도原州市鶴城1洞1008) 4명은 지난80년12월중순께 서울 道峰區樊洞에있는 임야 6백34평(싯가5억상당)의 소유자가 관리를 소홀히하고있는것을 이용, 康五福씨(69·강원도原州市中央洞257)가 1932년12월에 15원30전에 매수한것처럼 매도증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서울지법북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가로챘다.

孫宜春파(64·서울中區순화동142) 5명은 지난79년6월 국유지인 서울道峰區中溪洞일대 대지 6백36평(싯가2억상당)의 등기명의가 신흥남씨로되어 있는것을 평산신씨 족보에수록된 申龍均씨(61·강원도原州市봉곡동697의401)의 아버지가 마치 신흥남씨인것처럼 족보를 변조하여 申龍均씨로부터 구속된 申鉉旭씨(64·서울麻浦區阿峴1洞272의2)가 산것처럼 매도증서를 만들어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가로챘다.

朴相基파(52·서울 麻浦區老姑山洞54의36) 3명은지난6월23일 서울道峰區雙門洞20일대 토지 1천9백88평을 원소유자 金玉子씨가 6천만원을차용하면서 채권자에게 가등기를설정해 준뒤 돈을 갚지못하고있는것을 이용해 金씨의채무를 인수, 부동산을매수한후 서류를 위로하여 가등기를 말소하고 제3자에게 다시 가등기해주고 6천만원을 가로챘다.

後續인사 하룻만에 一段落
검찰首腦 世代交替안팎

鄭致根검찰총장의 취임으로 시작된 검찰개편은 하룻만에 일단락됐다.

동기총장의 발탁기용으로 거취가 주목되던 고시8회출신들이 일단 자리만 바꾼채 검찰조직의 중추로 재중용됐다. 인적자원의 한계가 있는 검찰의 입장으로서는 어쩌면 불가피한 조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무부 본부요직과 대검본부에 고시9회에서 13회까지를 기용한것이 돋보인다. 다음번 인사때부터 고시8회의 용퇴가 시작되지않겠느냐는 추측을 가능케하는전진적인 인사포석이다.

대검의 6개부장자리와 법무부의 4개국장직에 8회이후 세대가 진출했다.

그러나 본부외 기관장인각급검사장직의 경우 6개 고등검사장직(법무차관, 대검차장, 3개고검장, 사법연수원장)에는 전부 8회출신으로 채워졌고 검사장급(법무부실·국장, 대검부장, 지검장, 고검차장, 사법연수원부원장) 26개직은 고시8회가11명, 9회 2명, 10회 1명, 11회 1명, 12회 3명, 13회 5명, 14회 1명등으로 분포돼 8회가 주류를 이뤘다.

검사장급만을 보면 고시9회에서 14회까지가 지난4월 인사때의 7명에서 6명이늘어 13명이나돼 오히려 8회출신 11명보다 많은편이다.

이밖에 8회출신으로서 동기들보다 뒤져 고등검찰관에 머물러있던 2명의 서울고검 검사가 재경지청장에 기용돼 8회에게 일단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원칙이 엿보여진다.

檢察中樞 모두 8회서발탁
「수사·政策불편」시정…「低質炭인책」관심
무너진「검찰聖域化」…「君臨」서「봉사」로

이번 인사의특징은 법무부가 밝힌것처럼국가최고정책목표 수행을위해 모든검사의 역량을 검찰조직내에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 융화시켜 검찰조직력을 국가정책목표에 응집시킨다」는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있다.

이점은 이번인사에서 정부정책방향과 마찰을일으켜 정부조직간에 불편한 부작용까지 낳게한것으로 고위층에 지적된「연탄사건수사」의 주역들이 문책인사된것에서 쉽게 알수있다.

이번 인사의 또하나의특징은 국가최고정책에 부응하는 일사불란한 검찰운용체계를 확립시키기위해 검찰의 최고감독권자인 법무장관이 일관성있는 검찰권행사를 지휘할수있도록 일대개편을 단행했다는 점이다.

이번인사의 골격이 신임총장의 임명이 있기전인 지난15일에 이미 갖춰졌다는 후문이고보면 이번인사는 거의 李鐘元법무장관의 구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해 주고있어 李장관의 친정체제의 강화가 엿보인다.

공안검사경력을 중시했다는점도 이번인사의 특징. 신임총장이 서울지검과 대검의 공안부장을 역임한「공안통」인것을 비롯 법무부의 핵심요직인 검찰국장에 기용된 金淇春국장역시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공안베테랑이다. 이같은 사실은 역시 검찰기능을 국가최고정책목표의 범주안에서 재정립하겠다는 정부의지와 일맥상통하고 있기도하다.

지난4월 인사때 이미나타난 현상이지만 우리검찰도 이제 후배가 총장으로 기용되면 선배가 용퇴하는 전통이 확립됐다고 평가할수 있다. 그러나 檢察史的인안목에서 보면 이번인사는 시사하는점이 많다.

유신체제 아래서의 申稙秀 金致烈총장시절의 검찰은 聖域化 돼있었다는 세평을 부인하지못한다. 그러던것이 77년12월 吳鐸根大邱고검장의 총장발탁을 깃점으로 둑이무너지기시작 그뒤로3, 4년간 봇물 터지듯 검찰을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했다. 79년5월 고시8회의 검사장진출, 81년3월 許亨九검찰총장의 파격적인 기용, 徐廷覺光州고검장등의 용퇴, (81년4월) 고시8회의 차관, 대검차장등장 (81년4월) 李鐘元법무장관의 영전 (81년4월), 鄭致根총장의 전격출현등은 그 하나하나가 모두 큰 사건이었다고 할수있다. 「파격」「혁신」「대개혁」등의「의표를찌른인사」이자강한용어로도 그 엄청난 의미가 설명되기가 어려웠다.

대국적으로 볼때 검찰는군림하던 자세에서 봉사하는마음가짐으로의 기틀을 다져가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에겐「곤혹」의 시대임에 틀림없다. 검찰청 주변에는 그래서「人生流轉」이란는 유행어까지 나돌고 있다.

검찰이 빨리 안정기에 도달하는것을 바라는 마음이간절하다.【安濬秀·崔奎植기자】

"正義로운 民主사회 구현
檢察權 國家안보에 우선"
鄭검찰총장 新任辭

신임 鄭致根 18대검찰총장은 17일『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를 구현하기위해 검찰은 새시대·새역사창조에 적극공헌하고 국가의진로를 슬기롭게 선도하는 사회정의의원동력이 돼야겠다』고말했다.

鄭총장은 이날 상오11시30분 대검회의실에서 가진취임식에서 이같이밝히고『새역사를 창조하기위해서는 기존의 가치체계에 얽메이지말고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데모든힘을 기울여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鄭총장은 또『이를위해 검찰은 국내외정세를 예의주시해 국가와 국민생활에 어떤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판단한후 검찰권을 발동해야할것』이라고 말하고『검찰권은 어느무엇보다도 국가안보를 공고히하는데 역점을둬야하며 경제안정과 사회정화를 선행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설땅을…"
金壽煥추기경 聖誕메시지

◇金추기경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金壽煥추기경은 17일 성탄 메시지를 통해『오늘날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은 더욱 험악하고 비인간화돼가고 있다』고 전제하고『인간과 세상을 구원하기위해 이땅에 온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사랑과 봉사의 길을 갈때 해방과 구원의 길이 열릴것』이라고 말했다.

金추기경은 이 메시지에서『가난한자 약한자들의 설땅은 더욱 좁아져 금력과 권력이 판을치고 약육강식이 현세를 지배하는 원리처럼 돼버렸다』고 말하고『오늘날 세계도처에서 목격되는 인권유린과 자유의속박, 나태및 폭력행위등 인명경시는 인간존엄의 바탕이 무너진데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金추기경은 또 공산세계뿐아니라 자유세계도 전적으로 세속적인 사회를 구축, 스스로 파멸을 재촉하고 있다면서 그리스도는 이같은 자멸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전환시키기위해 이땅에 오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불행한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라고 부를수 있어야만 성탄이 우리의 현실속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高入 연합고사 理解力테스트重點

82학년도 고교신입생 선발연합고사가 17일 상오9시부터 서울을비롯한 전국20개평준화지역은 시도교위단위로, 그외 비평준화지역에서는 학교별로 실시됐다.

수험생들은 이날 상오8시40분까지 입실, 9시부터 국어·도덕·사회·음악과목의 1교시시험에 들어가 하오1시30분 3교시 시험을끝으로 11과목고사를 모두끝냈다.

시험문제는 지역에따라 다르게 출제됐는데 문교부는중학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쉽게풀수있는 문제들이었으며 기본개념에대한 이해력 테스트에 중점을두어 출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 경우 이날 하오3시께 정답을 공개했으며 합격자는 전기고는 1월14일, 후기(인문고)는 1월26일에 발표된다.

女大生피살 "제3의 目擊者출현
"여관앞서 男女말다툼""

상경여대생 朴尙恩양 피살사건에대한 제3의 목격자가 나타났다.

한시택시 대리운전사인 趙承鎬씨(32·서울東大門區長安洞75의15)는 사건발생일인 지난9월18일 밤10시40분께 서울江南區 三成洞 三井莊여관 옆길에서 피살된 朴양과 불구속송치된용의자 J군(21·K大3년)을 닮은 20대 남녀가 심한 욕설을주고받으며 다투는것을 목격했다는것.

趙씨에 의하면 이날 자신의 애인(33)을 만나기위해 三井莊여관옆의 예성여관 앞에 서있었는데 三井莊여관쪽에서 J군과 비슷한키의 남자가 뛰어나오고 곧이어여자가 뒤따라와『이대로가면 어떻게하느냐해결을하고가라』고 대들자 남자는『해외연수를갔다오더니 남자얼굴에 침까지 뱉느냐』며싸웠다는것.

남자는 술에취해 구토를하기도했는데 趙씨가 쳐다보자 여자와 영어로 말을 나누다함께 여관쪽으로 갔다.

그런데 趙씨는 지난해12월 교통사고처리를 잘해주겠다며 현금40만원을받고 달아나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기소중지자로 지난15일 麻浦경찰서에 검거돼 구속수사를 받아오다 이같은 목격담을 털어놓았다.

趙씨는 이같은 목격사실을 지난달 1일과4일 두차례에 걸쳐 익명의 편지로 수사본부에 발송했으나 수배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나타날수 없었다고 말하고있다.

趙씨가 보냈다는 두통의편지는 필적감정결과 사실임이 밝혀졌다.

이에따라 이 사건을 담당하고있는 서울지검 東部지청 趙炳吉검사는 16일밤 趙씨진술의 임의성을 확인한뒤 J군과 대질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28일 J군이 불구속송치된이후 운전사康世榮씨(35)와 姜모씨(34·여)등 목격자2명의 진술을 확인하고 J군을 검찰외부에서 만났으나 J군은 범행을 계속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가스배출기 고장 20代처녀 中毒死

연탄가스배출기가 고장나는 바람에 연탄가스에중독, 숨진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상오7시40분께 서울城東區陵洞257의11 전경환씨집 건넌방에서 혼자 잠자던 전씨의 누이동생 경자양(26)이 갈라진 방바닥틈으로 스며든 연탄가스에 중독돼 숨져있는것을 오빠전씨가 발견, 경찰에신고했다.

전씨에 따르면 경자양이연탄가스로 숨진후 2층옥상에 올라가 굴뚝속에 장치된배출기를 확인해보니 고장이나작동이 안되고 있더라는것.

曹溪宗 의장단辭退
月精寺 분규등 물의에 책임

불교曹溪宗의 鄭草宇 총무원장과 徐義玄종회의장및 洪鳳洙·李普成종회 부의장등 의장단전원이 17일열린 중앙종회에서 자진사퇴했다.

이들의 사퇴는 최근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佛國寺및 月精寺 주지직을 둘러싼 분규와 駱山어린이집 운영에서비롯된 독직사건에 책임을진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부터 10일간의중앙종회를 소집중인 불교曹溪宗중앙종회는 이들의 사표를 받아들이기로하고 18일상오10시후임 총무원장및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文化短信

自作品펴내는 出版社차려
「모눈종이위의生」쓴 趙善作씨

◇趙善作씨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펴내기위해 스스로 출판사를 차려 화제.

4년만의 침묵을 깨고 지난봄부터 한국일보에「모눈종이 위의 生」을 연재, 호평을 받았던 작가 趙善作씨는 이의 출판을위해 직접출판사「新作社」를 설립,「모눈종이…」를 내놓았다.

「모눈종이…」는 작가가 지난77년「완전한 사람」을 발표한후 4년만에 써낸 장편으로 우리사회의 부조리와 갈등을 배경에 깔고, 현실과의 화해를 시도한 작품.

趙씨는「모눈종이…」의출판을 계기로 작가로서, 경영인으로서의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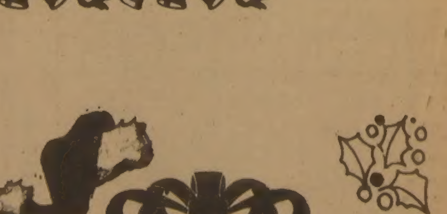
음주운전은
여러분의生命과
財產을 위협 합니다.

신장개업 X—MAS 선물의집

고급 화장품과 신사숙녀 향수전문

피부와 개성에 맞는 화장품
선택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화장품 : 란콤
헤레나 로빈스타인
맥스 펙터



향수 : 지반시
피에르 카르뎅
에프리스

GOLDFINGER 화장품점에
문의하셔요.

GOLD FINGER 화장품
620A BLOOR ST. W
전화 : 534—9977

宗敎

曹溪宗 宗權다툼 또 일까

불교曹溪宗이 정화이전의 분규사태로 다시 휘말려들지도 모른다는 우려속에서 제70회 중앙종회를 열고있다. 열흘동안이나되는 유례없는 회기를 잡아 지난16일 막을올린 중앙종회는 주요안건이 연말결산및 새해예산 책정으로 돼있었으나 벽두부터 종헌종법개정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있다.

幕오른 제70회 中央宗會

◇많은 관심속에 열리고있는 조계종中央宗會. 개회벽두에 겸직금지해제에따라 새로 선출된 의원스님들이 선서를 하고있다.

宗會의원의 兼職조항 격론

直營사찰 住持신분도 爭點

佛國寺 소송·駱山어린이집 문제등도 議題로 확산

격론을 몰아온 종헌종법의 문제조항은「종회의원은 본사주지와 총무원부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부분.

이조항은 住持직이나 집행간부를 차지하려는 다툼에서 宗權싸움이 비롯된다는 판단에따라 정화중흥회의 때부터 생긴것으로, 의결기관은 분규 요인으로부터 초연하자는뜻에서 겸직금지를 신설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9월에 열린 68회 종회에서는 그렇지않아도 인재가드문 종단에서 본사주지와 집행부 간부를 제외한다면 의원의 자질이 크게 떨어진다는이유로 겸직금지 해제안을 결의했었고, 바로 그다음 69회종회에서는 지난번에 풀었던겸직금지를 다시묶기로 결의함으로써 파란을 불러일으켰다.

종헌등 종회의 중요결사항에대해 인준을 거치도록돼있는 원로회의는 당시 종회의 이같은 결의(겸직금지)를 부결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예산결산회의로 열리고있는 이번 중앙종회는「겸직금지 해제에따른 의원」들로 구성돼있다.

이번70회 종회의 또하나의 쟁점은 지난 68회 종회에서 종단사업비 충당을위해 만든 직영사찰제.

당시 개정한 직영사찰관리법에 의하면 직영사찰의 주지는 총무원장이 겸임하고 직무대행을 발령토록돼있어 주지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데서분규의싹이 틀 소지가있었다.

아닌게아니라 분규는 직영사찰로 만든 佛國寺에서 번지기시작했다. 佛國寺는 당초 제11교구 본사였으나 직영사찰이 되면서 교구본사가 寶鏡寺로 변경된것이다.

佛國寺住持 金月樓스님은 鄭宗총무원장을 상대로「제11교구 본사의 보경사로의 변경행위효력정지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종단내의 분규를 외부로 끌고나가거나 소송을 제기했을때는 징계한다는 규정에따라 金月樓스님은 제적된채 후임주지는 발령되지 않은상태에있다.

문제는 이 소송의열쇠가 이번 중앙종회에 달려있다는데있다. 왜냐하면 종헌종법개정을 능사로 알고있는 중앙종회가 겸직금지해제를 비롯한 수많은조항을 손바닥을 뒤집듯 바꾼전례에 비추어 직영사찰의 주지신분을 얼마든지 보장토록 개정할수있기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국사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이미 총무원측과 종회측 관계스님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종회에서의 종헌종법의 손질에 따라 소송사안의 자연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스님들은 중앙종회가 종도들의 의견청취도없이 자주 법안을 개정하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어디까지나 종단운영에 긴요한 사항만을 개정함으로써 승단본연의 수행에 열중해야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총무원은 종회개회에 앞서 종단의 안정에 주력하고 대내적으로 조용히 사업을 펴나가겠다는 새해계획을 발표했으나 어느정도 실현될지는 의문으로남는다. 정화중흥회의로부터 금년초에 종권을이어받은조계종단은 지난5월 무능을 이유로한 원장교체의 진통을 겪었고 종단사업에 필요한 경비염출에 따른 법개정으로 파란을 불러일으킨 전철이 있기 때문이다.

자비를 베풀어야할 불교가 이제까지 사회봉사활동에는 너무나 등한했다는반성론에따라 종단차원에서 첫케이스로 시작한「駱山어린이의집」만해도 운영비를 제때에 대지 못하는 등 잡음이 컸었다.

조계종의 새해사업내용을 보면▲행자교육원설치▲승려의 연수교육강화▲3년간 수행한 宗立禪院(수도원) 설치▲승가대학 확충▲노후승려요양원 운영▲인구집합지역에 포교당건립 등이다.

조계종의 사업은 언제나 실현보다 논란과 다툼이 앞섰다는 점에서 이번종회가 조용한 결속으로끝나주기를 많은 불교도들은 학수 고대하며 귀추를 주목하고있다.【李忠雨기자】

聖誕을 맞는 마음

말씀

李大鏞 <대한성공회 약수동성당신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탄생하셨다. 물론 부한 이들에게도 찾아오셨다. 그러나 그가 탄생하신 뜻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데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심신에 병든 이들을 위하여 탄생하셨다. 물론 성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셨다. 그러나 그가 탄생하신 뜻은 병든 사람들과 성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려는 데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옥중에 갇힌 자들을 위하여 탄생하셨다. 물론 갇히지 않은 이들에게도 찾아오셨다. 그러나 그가 탄생하신 뜻은 옥중에 갇힌 자들과 갇히지 않은 이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갇힌 자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려는데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탄하신 교회는 그의 뜻을 받들어 가난한 자와 부한자, 높은 자와 비천한 자, 약한 자와 강한 자가 모두 힘을 합하여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약한 자들을 위하여 일해야 할 사명이 있다.

금년에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여러가지 행사들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탄을 뜻깊게 하고자 부심하던 끝에 성탄축하파티를 준비하고 음악회, 연극발표회를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아원, 양로원, 각종 사회사업기관을 방문할 계획들을 세운다.

그러나 그런 행사들을 치르고 나서 대체로는 허탈감에 빠져버리고 말아「과연 무슨 의미가 있어 이토록 애를 쓰면서 행사를 치렀던 말인가」하는 생각으로 후회하곤 한다. 특별히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는 이들이 많다. 일년동안 얼굴 한번 뺑긋하지 않다가 알량한 선물들을 들고가서는 패나 위하는 것처럼「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러 왔다」고 치레인사를 하고 나서는 함께 춤을 추어보자, 노래를 부르자 하면서 억지웃음이라도 보고서야 떠나오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가?

진실로 철거민과, 최저생계비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과, 적자농사를 계속해야 하는 농민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의지없는 노인들과, 병든 이들과, 옥에갇힌 사람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괴로움을 함께 나눌 마음이 있는가? 고통속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들을 위로해주려는 자가 진심으로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겉치레의 행사, 실적 위주의 행사, 눈가림[?]의 행사를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은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더 괴롭게 만들어, 주는 일들이다. 말밥통에 누우신 갓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탄절을 지키자.

참으로 이 땅에는 외로와서, 병들어서, 가난에 시달려서, 옥중생활에 지쳐서, 주님의 강탄을 그야말로 애타게 기다리는 이들이 많다. 그들을 위한 성탄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와 신자들의 책임이다.

가난한者의 고통 함께 나누어 갖자

인간들에게 복주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의 일생을 보내셨다. 당신의 수를 다 사시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말하자면 고난의 일생을 사시고자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이 세속적 희락과 인간적 행복을 추구하는 절기로 전락하는 현상을 보면서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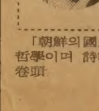
돈의 힘으로 정의를 짓뭉개는 곳에 주님께서 오신다. 불질주의 앞에는 심판자로 임하시고, 수탈자에게는 불칼로부터의 해방자로 임하신다.

지상적 권세의 횡포로 말미암아 응어리진 마음에 주님께서 오신다. 권세 앞에는 심판자로 임하시고, 피압박자에게는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

죄와 거짓으로 가득찬 이 세상에 주님께서 임하신다. 이 세상에서 죄와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과 선한 양심이 힘을 가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오신다.

오랜 고난과 시련의 역사를 가진 이민족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특별하신 의도는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헤아려 알아야할 줄 안다.

名言



史學者, 文學者。 號는 六堂, 서울출신。 新文館·朝鮮光文會를 세워 雜誌와 古典간행, 新文化運動의 旗手로 활약。 時代日報창간, 3·1獨立宣言書의 草者。「朝鮮歷史」「故事通」등 저서다수。

「朝鮮의國土는 山河그대로 朝鮮의 歷史며 哲學이며 詩며 精神입니다」<尋春巡禮>의 卷頭

朝鮮의 國土는 바로 歷史며 精神이다

崔南善 <1890~1957>

××××

한국近代文化運動의 先驅者를 말 할때 六堂 崔南善을 빼놓을수없다。

우리의 新文化건설에있어 六堂이상의 天才的能力과 超人的努力을 겸비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短命했고 不運했다。67세 를 一期로 떠난 六堂은 그가 각분야에서 보인 해박한 지식을 集大成할나이에 他界했다。

甲午更張후 宗敎界 學界 言論界 文壇등에 몸을던져 각기 삽과 괭이를들고 處女地개척에 종사한 인물이 한두사람이아니건만 六堂만큼 學究와 事業의 범주가 넓고 커서 나라잃은 청소년들에게「朝鮮心」「한국얼」을 심어준 인물도 드물것이다。

그는 時代의 첨단을 걸었고 社會가 그를 따를수없는 進步된 생각을 가졌으나 이를따르지못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아야했다。특히 30년代 후반부터의 그의 활동에 대해선 사람들은 말들이 많다。

歷史家로서나 文人으로서나 그의活動은침체기에 들어섰고 獨立宣言書의 기초자이던 六堂이 어떤과오를 범했는가에 대해선 그간 많이 논의됐다。

末年의행적이 30년代초까지 지속된 그의 과거의 활동에 비해 너무나 초라했다해도 그의 生存은 우리나라 新文化전반에 걸친 하나의「산辭典」으로 일종의 人間文化財에 속했었다。

春園, 爲堂과 함께 朝鮮의 三才로 불린 그의 博覽強記는 여러면에서 後學들의 자상한 길잡이였다。

他界하기전 그는 天主敎의 독실한 信者가 됐다。

그가 佛敎信者인줄 알았던 세상사람들은 改宗한 것으로 받아들여 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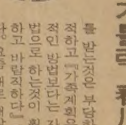
그러나 六堂은 佛敎精神에서 많은 영향을 받긴했으나 佛敎徒는 아니었다。

天主敎가 박해받으며 傳道된 사정과 거기에 佛敎思想을 배합시킨다면 우리국민의 정신적 지주가 될것을 그는 믿고있었다。

不姙수술등에 혜택은 不當

"가족계획 自然的방법으로"

가톨릭 春川교구장 朴토마主敎



가톨릭 春川교구장 朴토마주교는 16일 정부가 두자녀이하의 가정과 불임수술을 한 부부에게 아파트분양의 우선권을 주고 두자녀이상의 가정엔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가정을 파괴하는 이러한 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톨릭 가정司牧담당 주교인 朴주교는 이성명에서『자녀때문에 사회에서 차별대우를 받는것은 부당하다』고지적하고『가족계획은 비자연적인 방법보다는 자연적인방법으로 하는것이 훨씬 안전하고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요즘 새로 개발된 자연적인 가족계획방법은 과거에 알았던 방법보다 이해하기쉽고 실행하기도 쉬울뿐아니라 건강을 해치는일도 없다는것이다.

강제불임수술이나 낙태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귀중한 생명을 해치는 일이라고 밝힌 朴주교는『과잉인구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해치지 않고서도 해결할수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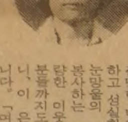
朴주교는 이러한점에서『자연적 가족계획은 어떠한 피임법보다 바로 부부자신들을 위한 참삶의 구체적인방법』이라고 전제,『부부상호간의 깊은사랑과 존경심과 이해심을 불러일으키고 대화와 상호협조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것이 자연적가족계획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朴주교는『비천한 환경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려고 하는 이때, 자녀수에 바탕을둔 차별대우정책은 문제해결 보다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고 들고『정부는 국가와 인간사회의 번영이 가정의 번영에 달려있고 국민은 국가의 가장 큰 자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나의告白

자만으로 가득찼던 심령 하나님 찾은후 정결해져

金慶子



교실은 나의 작은 왕국, 가정은 나의 작은 궁전, 학교와 가정으로 이어진 이 가교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건너다녔읍니다. 독선과 아집으로 높은 성곽을 쌓아 올리면서, 그 안에서 달팽이마냥 유유자적하며 책 읽고, 음악 듣고, 화가인듯 꿈을 그리기도 했읍니다.

만만찮은 합리적인 나의 화풍에 포도주를 마신듯 알맞게 취하기도 했읍니다. 내 능력과 직업이 합당하다고 자처하며 작은 왕국에서 우쭐대기도 했읍니다. 오만한 꿈을 豪園의 풍속도인양 거침없이 그려나갔읍니다. 그 화필을 멈추게 한 몇가지─ 인간고통의 원초적인 것, 확연치 않은 죄의식, 구걸하는 자와 적선하는 자의 갈등, 아들낳기를 기원하며 칠성당에서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돌아설 때의 허탈함…. 안톤시나크의「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중에도 이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나는 마음이 슬퍼지고, 좌절감으로 뒤범벅이 된채 언덕위 작은 교회 마루에서 경련하듯 입술을 떨며 하염없이 기도하는「한나」가 되었읍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속 간절함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며 또 서원하면서, 그 후로 내가 그리던 꿈의 풍속도는 무명 환쟁이의 탱화같이 현기증이 나고 무섭기도 하여, 헤푸게도 마음속에서 소각해 버렸읍니다. 그리고 배추흰나비처럼 탈바꿈을 했읍니다. 자만으로 가득찬채 성곽만을 맴도는 어리석은 달팽이의 심령을 하나님은 흔들어 깨우셨읍니다. 새벽녘 찬가에서 읊조리는 내입술의 떨림과 소리없는 간구까지도 흘려버리지 않고 다 들어 주셨읍니다.

구원을 주셨고,「한나」처럼 사무엘같은 아들을 주셨고, 부족한 것을 채워 주셨읍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불로 살라 주셨는지 물로 씻어 주셨는지 정결케 해주셨읍니다. 어지신 부모 형제, 건강하고 총명한 나의 아이들, 자상하고 성실한 지아비, 맑은 눈망울의 꼬마들, 쉼없이 봉사하는 우리 숙이와 선량한 이웃들…. 이 모든 분들까지도 함께 지켜주시니, 이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여호와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23편(다윗의 시)을 읊어보며, 오늘도 새벽 찬가에 다소곳이 앉아 봅니다.

(서울 신사국교 교사)

美術

現代韓國畵協會 22일까지 創立展

지난6월「東洋畵」라는 용어를 배격하고「韓國畵」라는 용어를 내세운 전통화가50여명이 발족시킨 現代韓國畵協會(회장 李元載)가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창립전을 갖고있다. 이들은「동양화」라는 용어가 日帝때 日本人들이 붙여준 근거없는것이므로 이를 배격하고 미래를향한 현대의 인식을 강조했었다.

현대 工藝家會展

1974년 창립된 한국현대공예가회(회장 申權熙)가 18일부터 23일까지 문예진흥원에서 제8회 전시회를 갖는다. 이전시회는 6회까지는 공동주제였으나 지난해부터「개성적창작」을 보여주고있다.

金煥珍 시원한 펀치 한번없었다

始終고전 5개월만에 타이틀뺏겨

WBA J플라이級 日 도까시끼에

【센다이(仙臺)16日聯合】 프로복싱 WBA주니어 플라이급 챔피언 金煥珍(26)은 16일저녁 이곳서열린 타이틀 2차방어전서 日本의 도전자 도까시끼·가쓰오(21·渡嘉敷勝男·동급WBA2위)에게 시종 몰린끝에 판정패(3─0)、지난7월19일 타이틀을 차지한지 5개월만에 王座에서 밀려났다.

판정결과는 148─140(슈미트 주심) 149─139(할 부심) 149─136(하세트 부심)으로모두 도까시끼 우세였다.

도까시끼의일방적인경기였다. 15라운드가 진행되는 동안 金이 우세했던라운드는한라운드뿐이었으며도까시끼의 변칙공격에맥을추지못하고참패했다.

도까시끼의 펀치가 강했더라면 KO로 쓰러졌을지도 모를 상황이 여러차례 펼쳐졌다.

구시껜·요꼬의 후계자를 자처하며 링에오른 도까시끼는 1라운드가 시작되자 예리한 왼쪽 잽을 던지며 공격을 주도, 金의 안면에 스트레이트와 어퍼컷을 잇따라 적중시켜 기선을 잡은뒤 5라운드까지 계속 점수에서 앞서 나갔다.

신장과 스피드가 뒤진 金은 상대의 스피디한 게임운영에 말려 시원한 펀치 한번 제대로 날리지 못하고 헛손질만 연발, 8라운드가 끝났을때 이미 승패는 판가름났다.

金은 도까시끼의 스태미너가 떨어진 10라운드이후 필사적으로 밀어붙여 몇개의 위협적인 훅을 적중시켰으나 턱을들고 무모하게 덤비다가 오히려 카운터 펀치를 맞고 비틀, 열세에 빠졌다.

이날의 결과는 예상밖으로 金의 완전한 패배였으며 체력, 경기운영, 스피드 공격력 등에서 모두 도까시끼가 우세했다. 전통적인 기술과 펀치력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오래 타이틀을 지킬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준 경기였다.

◇反擊도 허사 한국의챔피언 金煥珍이 WBA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 2차방어전서 日本의 도전자 도까시끼에 스트레이트로 반격하고있다. 【센다이16日AP聯合】

金煥珍 실력차自認

【東京16日=聯合】 프로복싱 WBA주니어플라이급 타이틀 2차방어에 실패한 金煥珍은 16일 저녁『컨디션도 그리나쁘지는 않았으나 실력의 차이로 어쩔수 없었다』고 완패를 시인했다.

金은 이날 경기후에 가진 회견에서 상대의 기량이 한수 위였다고 실력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할말이 없다고말끝을 흐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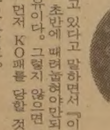
"初盤 KO못시키면 내가 崔忠日에당해" 나바레데

【마닐라16日AP=聯合】 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 주니어·라이트급 챔피언인 필리핀의 롤란도·나바레테는 내년 1월16일 한국의 崔忠日과 갖게될 첫 타이틀 방어전에서 전력을 다해 崔를 초반에 KO시키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아내와 두자녀와함께 호놀룰루에서 마닐라에 도착한 올해 24세인 나바레테는 崔가 노련한 복서이며 강한 펀치력 소유자라는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이것이 초반에 때려눕혀야만되는 이유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KO패를 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崔는 링캐리어가짧지만 프로전향후 13연승(12KO승)의 기록을 갖고있으며 이중 KO패를 당한 필리핀선수는 7명이나 된다.

필리핀의 리잘·메모리얼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타이틀전은 나바레테가 지난8월 이탈리아의 비아레기오에서 英國의 코넬리우스·보자·에드워즈를 눌러 챔피언이된후 갖게되는 첫번째 방어전이다.


◇崔忠日선수

마라톤記錄포상 時限두지않기로

코오롱그룹은 한국마라톤중흥의 돌파구를 열기위해 기록경신선수에 지급키로한 1억5천만원의 연구장려비 지급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李東燦 코오롱그룹회장은 지난달 18일 88년12월말까지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15분 이내에 돌파하는 선수에게 5천만원을, 그리고 2시간10분내 돌파선수에겐 1억원의 연구장려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는데 이번 88년말까지의 시한을 철폐키로 했다고 코오롱측이 밝혔다.

프로野球 韓日시리즈 協議위해 張勳씨 내년봄에 歸國

韓日프로야구우승팀이 대결하는『韓日시리즈』실현을위해 3천안타의 재일동포 張勳씨(41)가 내년봄 귀국한다. 韓國프로야구 徐鐘喆커미셔너로부터 보좌역을 의뢰받고있는 張씨는 지난12일 도오쿄자택에서 이를 밝혔다.

韓國프로야구 발족을 위해 많은 조언을했던 그는『장래 기필코 韓日양국우승팀을 대전시키고싶다』고 큰 꿈을 펼쳐보였다.

홈즈 - 쿠니 世紀의 對決 내년 3월15일

【뉴욕16日聯合】 세계권투평의회(WBC) 헤비급세계챔피언인 래리·홈즈가 오는 3월15일 라스베이가스에서 체리·쿠니와 타이틀방어전을 갖게됐다고 프로모터들이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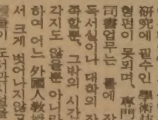
챔피언인 홈즈와 쿠니가모두 최소한 1천만달러 이상의 대전료를 받게되는 이번 대전은 시저스·팰리스호텔특설링에서 벌어진다.

지난 4월대전에 합의했으나 무패를 자랑하는 두선수는 사상 대전료가 가장비싼 시합이될 가능성이있는 이 경기협상이 몇달을 질질끌었다.

구독신청은 533-2361

十字春秋

大學 도서관



趙完圭 <서울大 自然大교수>

學問의 발전이 요새처럼 빠른 때가 없었다. 그래서 옛의 나라 大學의 圖書館들은 자료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서둘러 컴퓨터에 수록하고 있고 국내의 다른 圖書館들과도 네트웍으로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딴 나라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까지도 앉은자리에서 쉽게 얻을수 있게 되었다. 또 종전처럼 文獻카드를 뒤지느라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학자들에 대한 봉사는 그에 그치지 않는다. 거의 年中 밤낮으로 문 닫는 일 없고 자료는 완벽할 만큼 고루 갖추어져 있으며 개방식 서가이므로圖書·雜誌類 아무것이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단 한가지의 연구도 진행시킬수 없고 따라서 학자들은 마치 제2연구실처럼 이를 소중히 애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도서관은 學問의 中核的 구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서규모나 봉사기능여하로 그 나라 學問水準을 재는 척도가 된다고도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네 사정은 어떤가. 근래 몇몇 大學의 도서관들이 자료의 컴퓨터수록에 관심을 갖게된것이 다행이긴하지만 여전히 모자라는 예산때문에 그 실현은 요원한 이야기이고, 또 硏究에 필수인 學術誌마저도 제대로 갖추어놓을 형편이 못되며, 專門職에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司書업무는 틀[?]에 잡히지않았고, 수험준비생의 독서실이나 대학의 잠식용[?]시설의 구실정도로 만족한다. 그밖의 시간의봉사따위는 애초부터 생각지도 않을뿐 아니라, 그 운영은 지극히 경직하여 어느 外國人敎授말처럼「헌책의 창고」에서 크게 벗어나지않고 있다. 그런 상황이니 敎授들이 도서관시설을 외면하는것을 탓할수만도 없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네 大學圖書館이 近代化되도록 무언가 수를 쓸때가 왔다.

홍수처럼 넘쳐흐르는 學術情報를 신속히 체계있게 공급하는 것이 그 본래의 기능일진대 이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우선 예산의 확보, 자료의 電算化, 司書업무의 전문화 그리고 개방적 書庫의 운영등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헌 책의 창고」신세를 면하고 빈틈[?]없이 생동하는 진정한 學問의 중심적·전당으로서의 권위를 갖추게될 것이다.

流星의 賦 <263>

李炳注作 李友範畵

感傷異國月 ⑳

7월16일。

상관에서 동으로 배는 쏜살같이 항진했다。순풍이었던 것이다。

왜인 몽사가 계남의 옆에 서서 일일이 지명을 가르쳤다。

『저건 가무로즈(加室津) 저건 와까로또(和加老渡)』

몽사는 또한

『이 내해(內海)를 세도나이까이(瀨戶內海)라고하는데 그 경색이 하도 아름다와 일본 다른곳에 사는 일본인들은 이곳을 한번 구경하기만 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합니다』

한 설명까지 보탰다。

『우리나라에도 한려내해(閑麗內海)가 있소。그경색도 이에 조금도 손색이없다』

며 계남이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얼마지 않아 가마가리(鎌刈)라고 하는 포구에 근접했다。이때 달이 동쪽에서 솟았다。이른바 칠월기망(七月旣望)이었다。

계남이 왜인몽사를 보고 말했다。

『칠월기망을 아는가』

모른다는 대답이어서 계남이 설명했다。

『15일 만월을 망(望)이라고하고 16일 저달을 기망(旣望)이라고 하는거요』

몽사가 감탄했다。

계남이 다시 물었다。

『소동파(蘇東坡)를 아는가』

『모릅니다』

『소동파는 송나라의 시인이오。지금으로부터 5백년전의 시인인데 그의 시에 적벽부(赤壁賦)라는것이 있소』

『어떠한 시옵니까』

『내가 한번 읊어볼터이니 들어보시겠는가』

『좋습니다』

하더니 몽사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서 선창으로 내려갔다。이윽고 술병과 마른안주를 들고 돌아와

『이전 내가 적문관에서 마련한 주효입니다。흥공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해왔죠』

하며 선판위에 앉으라고 했다。

『몽사의 호의 심히 감사하구려』

계남은 사양않고 술잔을 받아 들이키고 낭랑히 적벽부를 읊었다。

『임술천추(壬戌千秋) 칠월기망(七月旣望)、소자여객(蘇子與客) 범주우적벽지하(汎舟于赤壁之下)、청풍서래(淸風徐來) 수파불흥(水波不興) 인데 월출어동산(月出於東山) 하여…』

계남의 낭랑한 소리는 음악이상이었다。몽사는 감히 극(極)해 눈물이 난다는 시늉으로 듣고 있더니 그시를 풀이해 달라고 청했다。

계남은 우일배(又一杯) 하고 적벽부를 풀이해 나갔다。그 두상하늘위에 달은 밝고 별 그림자가 희미한것을 가리키며

『월명성희(月明星稀)』

라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어「묘호창해지일속(渺乎滄海之一粟)」이란 대목에 가선 인생의 수요(須臾)를 들먹이며 눈물 겨워했다。

어머니의 모습, 처자의 모습이 눈 앞에 완연하고 고국의 풍물이 가슴을 죄도록 그리워졌기 때문이다。

『무인(武人)으로서 이처럼 시정(詩情)을 가졌으니 공(公)이야 말로 출중한 장부요。공이 만일 일본에 태어났더라면 그야말로 출장입상(出將入相)할 큰 그릇으로 될 수 있었을 것인데』

하고 몽사가 깊게 한숨 지었다。

소식

기독교 藝術人협회 聖誕축제 聖會열어

기독교예술인협의회는 오는 22~23일 상오10시, 하오 5시두차례 류관순 기념관에서 성탄축제성회를개최한다. 교역자복지원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성회는 연예인교인들이 출연하는 1부축제와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2부축하예배순으로 진행된다.

LA불교회관 건립 基金조성위한 展示

羅城국제불교회관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작품전시회가 18~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三一堂에서 열린다. 佛日국제선원 高麗寺가 주최하는 이 전시회에는 鷲峰 徐正默화백의 호랑이그림 60점과 도예가 崔仁石씨의 백자 40점이 출품되었다.

佛靑회장 裵照雄씨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13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에 裵照雄씨 (前부회장·전국신도회 섭외부장), 수석부회장엔 吳珪燮씨를 선출했다.

基督 聖書보급祈禱

기독성화보급회는 19일하오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도회를, 오는 24일상오 8시에는 스카이호텔에서 조찬기도회를 각각 개최한다.

孔陵洞본당을 신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孔陵洞본당을 신설하고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동잠실 본당을 新川洞 본당으로 개칭했다. 이로써 서울대교구 소속 본당수는 1백12개로늘어났다.

「異端」연구소 세워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기성교회에 침투하여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단종파를 연구분석하기위한「세계종교현상연구소」를 개설했다. 소장은 閔丙昭목사.

생명의전화 5주년

사단법인 생명의전화는 개원5주년의 업적을 담은「도움은 전화처럼가까운곳에 생명의전화 5주년 기록사」를 발간, 지난15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81년 平和의聖歌祭

예수교장로회 大神총회는 대한신학교 세계선교전도회와 공동주최로 81년平和의聖歌祭를 19일하오7시 梨大대강당에서 마련한다. 이날 성가제에는 서울각노회연합성가단 대한신학합창단 明知제관악합주단등이 출연한다.

「예수칼럼」단행본

한국대학생선교회 대표 金俊坤목사가 신문지상에 게재했던 글을 모은「예수칼럼」이 단행본으로 출간됐다.

天道敎 人日기념일

天道敎는 義菴 孫秉熙선생이 崔時亨2세 교조로부터 도통을 계승한 84회 人日기념일을 맞아 오는24일 상오11시 서울대교당을 비롯한 전국 2백여 교구별로 기념식과 각종 경축행사를 갖는다.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밤11시~오전7시(일~목요일)
도낫샵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 : 482-4088

RESTAURANT동업자 구함
BEER + WINE 라이센스가 있고 새 PLAZA내에 SETUP된 전망이 좋은 고급 식당입니다.
꼭 관심이 있는 분은
281-8218(오후2시~5시 사이만)
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HELP WANTED
일본 음식점에 웨이트레스와 키친헬퍼구함.
☎ : 977-9519 195 RICHMOND ST. W.
일본식당마사

닥터 사무실에서 일할분 구함(오후에일할 파타임)
1982년1월부터 시작함.
책임성있고, 참고인 서야함.(이력서를 보내세요)
DR. C. NGAN
2437 FINCH AVE. W. WESTON. ONT. M9M 2E7

매매및 양도

고급코트를 만들수 있는 친칠라 사육을 원하시는분 소자본으로 지하실에서 사육할 수 있음.
☎ : 859-4366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 531-0773 Mr.김 (직접내방바람)

자동차 급매
75년 로얄·모나코 68,000마일 A-1콘디숀, 보증서 해줌.
☎ : 530-1491 $1295.00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000다운페이+스탁
☎ : 251-1397

제인 × 세파드
1000 sq. +완전히 FULL지하실
오후5시 전화요망
☎ : 449-0676

1972년 DUSTER $350
☎ : 630-5289

밀크스토아 급매(오타와)
주매상 : $5700
◎스토아 매니저나 후렌차이즈 구함(토론토지구)
☎ : 624-5817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 849-0959, 7374~6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 656-7753

아 십 니 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한국일보 안내광고 요금안내		최소3번	1주5번
C-1(1칸)	.5"×4"	$10	$13
C-2(2칸)	1"×4"	$20	$26
C-3(3칸)	1.5×4"	$30.	$39

※안내광고중 내용을 바꿀시는
C-1 $1추가요금
C-2 $2 〃
C-3 $3 〃

☎ 533-2361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아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 533-2364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뉴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조율 수리 **SOO PIANO SERVICE**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462 김 수 용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한국일보
식품점서 판매중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 769-15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화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여 행 사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변 달 원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라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 465-8167 (MR. 김, MR. 곽)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품용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태 권 도

손영수 태권 합기도장
2188 BLOOR ST. W. 사범 : 손영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학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VIDEO 촬영 •wedding
•commercial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기 타

번역 통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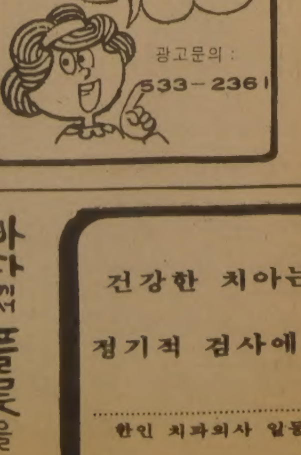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 698-0633 하마구찌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케익
☎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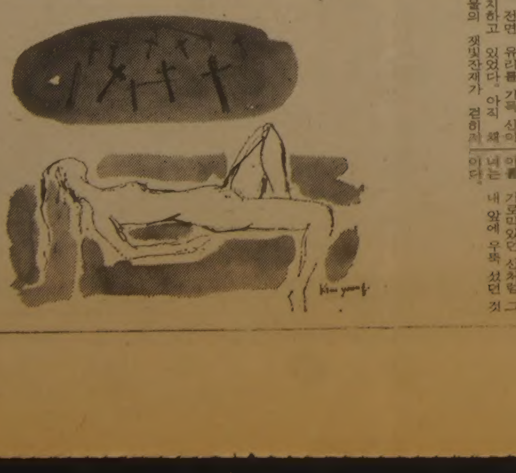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 537-0432 미스타 리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바다에서 플룻을 〈7〉

梁順錫 作
金鈴 畵



「火江이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나의 느닷없는 질문에 그는 입을 다문 채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저는 그녀의 이름을 한자로 쓸 때는 꼭 火江이라고 썼지요.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 아닌데도 말이에요」
火江이니, 그녀는 내게 어떤 존재였던가?
기악과 입학을 앞두고 입사한 학교 기숙사는 내가 자란 고아원과 흡사한 구조였다. 딱딱한 목제 침대 여섯개와 외짝 목제 옷장이 여섯개 썰렁하게 놓여 있었다. 지정받은 호실의 문을 열자 마주 보이는 창문으로 선뜻 산의 중턱이 다가섰다. 넓따란 전면 유리를 가득 산이 차지하고 있었다. 아직 채 겨울의 잿빛잔재가 걷히지 않은 그곳에 부연 안개가 괴어 있었다. 그 산은 마치 눈앞에 있으면서도 먼 곳의 오를 수 없는 산처럼 아득하고도 신비해 보였는데 한 발짝 다가서자 우울한 남자의 모습같기도 하였다. 한동안 시야에 펼쳐진 산의 모습만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던 내 앞으로 그 산을 가로막으며 다가오는 온화한 아름다움을 소유한 여자가 있었다.
「산을 처음 봐?」
「아, 아뇨」
「멋진 산이지?」
「네」
「무슨과야?」
「기악과」
「어떤 악기?」
「플룻」
「플룻? 근사하겠는데」
그녀는 두 손을 입가에 갖다대고는 플룻 부는 모습을 흉내내며 기숙사 방을 빙그르르 한 바퀴 돌았다. 나는 그러고있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웃음보다는 진한 슬픔이 묻어나오려는 것을 눌러야 했다. 인간의 본성에 잠재해 있는 슬픔을 자극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이 화강. 그녀는 자칫 늙어보이는 졸업반 선배였고 나는 이제 신입생이었다.
「명혜, 넌 집이 어디야?」
「집, 없어요」
「그럼 부모님은?」
「혼자예요」
그녀가 나의 손을 쥐었다. 마치 혼자 지내온 외로운 시간을 보상해 줄 것같은 그런 따스한 손길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녀에게 무조건 이끌리었다. 수입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힘, 처음 내 시야를 가로막았던 산처럼 그녀는 내 앞에 우뚝 섰던 것이다.
「나도 부모가 안 계셔」
「그러면?」
「시골에서 조부님이 농사를 짓고 계신단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
나는 그녀가 나와 동질의 것들을 많이 소유하였으면서도 나와는 다르게 그것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의 모난 생활방식이 그녀의 울타리 안에서 다스려지기를 기꺼이 원하였다. 비로소 만난 내가 기대일 수 있는 둔덕과도 같이 그녀는 나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도 나도 혈육없이 외로운 여자들이었지만 그녀는 세상에 대해 따스한 애정을 갖고 있었고, 그 애정이 내겐 더할 수 없는 힘이었다.
그녀에 대한 회상이 참으로 오랜시간이 지났음에도 나를 잔잔하게 적셔왔다.

謹賀新年

기쁜 성탄과 새해를 맞아 교민 여러분
들의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
시기를 빌며, 아울러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크게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UNITED KONADIAN LTD.

주식회사 한인연합상사

251—6578, 9

임직원 일동 배

謹賀新年

기쁜 성탄과 새해를 맞아 교민 여러분
들의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
시기를 빌며, 아울러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크게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SINCERE TRADING CO.

주식회사 신 의 상 사

291—3304

임직원 일동 배